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05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4월 1일 월 간

【1】



커버스토리

李壽成총장 취임

관약추추

金在淳회장 취임 1년동안 서울대학교總同窓會는 상당히 활성화되었다. 총동창회는 그동안 미국, 러시아, 일본등 해외지부의 창립을 독려, 해외동창회 조직을 강화했으며, 국내지부와 결속활동도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서울대출신 동문간의 연결고리역할을 담당해온 「동창회보」를 쇄신하여 편집진과 취재팀을 보강했으며 發行部數도 확충했다. 아직 紙面구성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좀더 세련된 회보로 발전하기위한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총동창회 회장단은 서울대출신 文民대통령인 金泳三 동문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서울대의 장기발전 방향

에 대해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서울大法의 제정문제와 財政지원문제, 대학원중심 대학의 발전전략등 서울대의 장기비전이 金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된다. 총동창회는 이 밖에도 동문간의 친목모임인 등산대회, 야구대회, 음악회등 각종 모임과 행사를 활성화했다. 金在

총동창회의 역할

淳회장의 폭넓은 경륜과 친화력이 동창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많다고 여긴다.

앞으로도 서울대總同窓會는 조직력과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켜 동문간의 유대를 굳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모교인 서울대의 발전을 뒷바라지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낙후된 우리나라 대학수준을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려야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은 대학 스스로가 선도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총동창회의 후원과 동참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核心분야에서 서울대출신들이 압도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바, 한국을 움직이는 주도세력들이 모교의 발전에도 견인차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지도층 인사들과 頭腦집단들도 自己革新과 함께 봉사정신을 발휘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출신 서울대총동창회의 선도적 역할과 기능이 요망되는 것이다. 마구잡이식 개혁과 변화가 아니라 절도있고 지혜로운 進化는 많은 서울대인이 담당해야 한다. 총동창회가 나라 발전 및 대학발전의 방아쇠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林)

'95 정기총회 성료

신입회원 환영 및 모범지부 포상



95년도 정기총회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달 25일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95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金在淳 회장을 비롯한 본회 회장단과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장이 참석

했으며, 尹天柱 前모교총장을 비롯해 鮮于仲皓부총장등 모교 교수 및 동문 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총동창회장에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이어서인지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선후배

동문들과 함께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李壽成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李賢宰, 趙完圭 前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들을 모신 자리라 새삼 여러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서울대 총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모범지부 표창에서는 부산, 수원, 전북지부가 지방지부상을 받았으며 (주)메디슨, 예일여상, 중외제약지부가 직장지부상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지부는 해외지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의대동창회장으로 새로 선임된 李吉女회장과 미대동창회장으로 선임된 李信子회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의대동창회 姜信浩전임회장에게는 본회가 마련한 공로패를 수여했다.

신입회원환영식에서 權彝赫 前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주적, 창의적, 도덕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金泰燁동문은 신입회원 답사에서 『전통과 명예의 서울대를 졸업해 동창회원의 자격을 갖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전심의에서는 총동창회 사업보고 및 94년도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교가제창으로 1부 순서를 마쳤다.

尹 前총장의 건배제의로 시작된 2부 순서에서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경품 추첨 및 여흥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와 관악5중주 공연은 선후배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상임이사회서 올해 예산 확정

동창회 13억·관악회 6억원

본회 및 (재)관악회는 지난달 3일 리베라호텔에서 94년도 결산 및 예산안의 처리를 위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모교 李壽成총장 및 羅雄培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등 4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金在淳회장겸 (재)관악회 이사장의 주재하에 李世霞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안전보고, 감사보고, 심의의결로 이어진 본 회의에서는

95년도 본회와 (재)관악회의 예산이 각각 13억5천여만원, 6억여원으로 통과, 확정됐다.

이날 회의를 위해 사무처에서 해당자료 및 문건을 일주일전에 상임이사들에게 배포했으며, 결산 및 예산편성에 관해 익숙치 않은 이사를 위해 朴英俊감사가 특별히 상세한 해설을 부연하는등 성의를 보였다. <본회 및(재)관악회 94년 결산 5·6면 광고欄 참조>

제휴카드사업 첫 결실

8천구좌 발급·기금 1백62만원

재정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제휴카드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지난 2월28일 朴正則국민신용카드 부사장이 본회를 방문, 李淇鎔사장을 대신해 본회 李世霞사무처장에게 제휴카드 기금을 전달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작년 9월부터 발급된 제휴카드는 지난 3월초 약 8천구좌

에 달했다. 이날 전달된 1백62만원의 기금은 이중 작년 12월까지 발급된 제휴카드 총사용액에 대한 일정비율 금액이다.

본회와 국민신용카드는 제휴카드의 확대를 위해 본회 각종 행사를 비롯해 각 단과대학동창회의 행사등에 카드신청접수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壽成총장 취임축하 만찬

金在淳회장등 참석, 대성황



좌로부터 權彝赫 前총장, 金在淳회장, 李壽成총장, 崔主鎬 명예회장, 金鍾云 前총장, 鄭宗澤상임부회장

지난 17일 힐튼호텔에서는 본회 金在淳회장과 SBS 尹世榮회장의 공동주최로, 모교 제20대 총장으로 취임한 李壽成신임총장 취임축하 만찬이 개최됐다.

주요 언론사들의 집중 취재 대상이 된 이날 만찬에는 權彝赫, 李賢宰, 金鍾云 前총장을 비롯, 모교에서 鮮于仲皓 신임 부총장 및 학장단, 본부 보직 교수들이 참석했으며, 동창회에서는 崔主鎬 명예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과 회장단, 논설위원, 단과대동창회장등 1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모교 음대 관악5중주의 연주 속에 본회 李世霞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의 진정한 주인은 동문들』임을 강조하고 『老·壯·靑 3대의

조화를 이뤄 세계화에 걸맞는 위상의 서울대를 이룩해 줄 것』을 李壽成총장에게 당부했다.

李壽成총장과 고교·대학동기이며, 공동주최자인 SBS 尹世榮회장은 『李壽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모교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李壽成은 답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고 『대학과 동창회는 한 뿌리인만큼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 金회장은 徐友錫 음대학장을 비롯해 車載浩, 柳明淑, 金大幸, 李柱亨교수등 모교교수 5명에게 각각 1천만원의 저술활동 지원금을 지급했다. <嚴>

경품 협찬해 주신 분

(접수順)

金在淳	샘터사 이사장	고급오디오	1세트
崔主鎬	우성그룹 회장	유성리베라호텔 숙식권	5대(2인1조)
金境成	대우그룹 회장	대우 전자렌지	2대
鄭宗澤	민자당 교육연수원장	대형세탁기	1대
具平會	무역협회장	냉장고	3대
金相廈	대한상회 회장	식용유	30세트
金善弘	기아그룹 회장	삼천리 고급자전거	3대
姜信浩	동아제약 회장	라피네화장품	10세트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1천켄
尹世榮	SBS 회장	대형칼라TV	2대
李夷熙	대우JAPAN 회장	대우 무선전화기	5대
姜晉求	삼성전자 회장	대형칼라TV	1대
朴容晟	두산그룹 부회장	마주암	20상자
		썬싱스페셜	3상자
朴晟容	금호그룹 회장	아시아나 제주항공권	3대(2인1조)
趙南煜	삼부토건 회장	호텔숙식권	5대(2인1조)
張翼龍	서광 회장	라코스테 티셔츠	10착
許鎭奎	일진 회장	기념수건	10백장
文大源	코리아제록스 부회장	제록스 레이저프린터	1대
姜晉佑	롯데쇼핑 사장	티셔츠	10착
金基炳	롯데관광 회장	필리핀 해외관광티켓	3매
閔丙岐	두산개발 부회장	NEX맥주	7백세트
玄在賢	동양그룹 회장	동양제과 카리멜	1천봉지
金英奎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홍삼선물세트	10세트
金性洙	오양수산 회장	오양선물세트	10세트
襄洵勳	대우전자 회장	대우 전자렌지	2대
吳世熙	한국홈쇼핑 사장	LG 무선전화기	3대
申熙澈	금강제화 부회장	금강 신사화	5족
趙太潯	라미화장품 사장	라미화장품	15세트
元容勳	대림통상 사장	리빙스타 압력밥솥	3세트
柳遠榮	한국전자 회장	전자키보드	1대
李大榮	비제바노 전무	비제바노 신사화	5족
李大遠	삼성항공 사장	삼성카메라	3대
李世靚	나드리화장품 전무	나드리화장품	10세트
孫京植	제일제당 회장	백설함	10세트
李憲祖	LG전자 회장	금성TV	2대
俞玄植	제일모직 사장	제일모직 신사복	2착
卞圭七	LG그룹 부회장	반도신사복	2착
崔英喆	코오롱상사 사장	코오롱 티셔츠	5착
黃英奎	태평양화학 사장	아모레화장품	10세트
安秉鈞	나산실업 회장	여성용 의류	5착
成夏龍	웅진미디어 사장	아동용교육교재	7세트
趙行淑	바우윙통 사장	협찬금	1백만원
崔峰植	치과의원장	특허 이수시계	7백개
安三錫	모나미 회장	모나미 수성볼펜	1천개
李承義	E-C-CLUB계여행 회장	서적	7백권
金京熙	지식산업사 사장	서적	10권



정직과 소신의 법학자 李壽成신임총장

“국내보다 세계를 무대로 경쟁해야” 바둑은 아마5단, 테니스로 건강다져

개교 반세기를 목전에 둔 서울대학교, 세계화를 향한 개방 물결과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이 유례 없을 만큼 거센 요즘, 지난달 모교의 제20대 총장으로 취임한 정직과 소신의 법학자 李壽成 신임총장에 대한 동문 선후배들의 기대와 관심은 남달리 크면서도 각별하다.

이에 본회 李世震사무처장 및 회보 기자가 지난 20일 모교를 방문해 李壽成총장을 만나보았다.



—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1萬 동문에게 인사말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한국 제일의 인재들이 곳곳에 포진한 만큼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동창회와 서울대는 한마음 한 뜻으로 훌륭한 대학 만들기에 진력해야 할 것이며, 저 또한 동창회 일원이자 학교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法」입법 추진

— 모교 발전을 위한 책임자라는 평가와 신망을 선후배 동문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배경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대학교의 근간은 「서울대학교 설치령」과 「국립대학교 설치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대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한정된 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대는 교육부의 평균적 보편성을 벗어난 특수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

구 발전시킬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의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서울대가 국내보다 세계의 우수 대학들과 경쟁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경쟁해야 하는 시기에 지적으로 선도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서울대가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제가 「서울대학교 法」을 꼭 만들어야 하는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法」은 교수들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수업환경 총족과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대가 교육, 연구,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인 재량권을 갖고 세계속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 및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실에서는 곧 「서울대학교 法」의 입법을 위해 중장기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면을 검토하

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그밖에 특히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 구상은 무엇인지요.

『첫째는 교수들의 연구여건 향상과 학생들이 향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악캠퍼스의 지나친 과밀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록 재임중 완수하지 못한다해도 제2캠퍼스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수, 직원, 학생 등 서울대 가족의 도덕적 헌신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밤새워 공부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부제폐지 신중하게 접근

— 지난번 법대를 비롯한 일부 단과대의 학부과정을 폐지하겠다는 신문보도 후, 많은 동문들이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특정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서울대는 공식적으로 학부과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한 방 안으로 검토한데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 총장이 獨斷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전면적인 폐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취미나 특기가 있다면...

『테니스와 바둑을 즐깁니다』

이때 배석했던 安京煥기획실장은 李壽成총장이 한국기원이사이며, 공인 아마5단의 실력자임을 알려주었다.

(嚴)

■李壽成 총장 약력

- △39년 경북 칠곡 출생
- △61년 서울대 법대 졸업
- △64년 서울대 법학석사
- △67년 서울대법학연구소전임강사
- △70년 美피츠버그대학교 법회사학회 교환교수
- △72년 서울대 법대 조교수, 부교수, 교수
- △76년 서울대 법학박사
- △78년 佛파리 제2대학교 형법학 교환교수
- △80년 서울대 학생처장
- △8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88년 서울대 법대학장

▲연구업적

- △79년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 △87년 형사정책(공저)
- △94년 형법총론의 2권
- △94년 「한국의 문화전통과 형법」논문의 40여편

1994년도

대 차 대 조 표

1994. 12. 31. 現在

(단위 : 원)

차 변	과 목	대 변
(1,326,716,408)	(자 산)	
1,144,216,718	예 치 금	
7,352,500	반 울 어 음	
20,690,348	미 수 금	
150,561,286	미 수 수 익	
3,895,556	차 량 운 반 구 (주1)	
	(부 채)	(69,902,119)
	예 수 금	1,485,981
	미 지 금	42,737,186
	수 입 보 증 금	2,500,000
	퇴 직 금 여 충 당 금 (주2)	23,178,952
	(자 본)	(1,256,814,289)
	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912,196,814
	당 기 순 이 익	344,617,475
1,326,716,408	합 계	1,326,716,408

주1)차량운반구:구입가격 13,912,696원에서 직접 상각 10,017,140원 감가상각함.

주2)퇴직급여충당금:총당금 24,881,352원에서 국민연금환금 1,702,400상계함.

결 산 공 고

손 익 계 산 서

1994. 1. 1부터

1994. 12. 31까지

(단위 : 원)

지 출 지 부		수 입 지 부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간 행 물 비	205,364,812	특 별 회 비	364,850,000
친 목 사 업 비	86,426,210	분 담 금	4,000,000
지 원 사 업 비	54,609,337	회 담 비	298,957,360
조 직 강 화 비	205,885,967	광 고 료	155,940,000
회 의 비	23,957,312	찬 조 금	149,805,641
전 산 화 기 금	24,861,540	수 입 이 자	100,057,334
인 건 비	72,666,340	잡 수 입	9
여 비	5,998,730		
사 무 비	12,398,030		
세 금 과 공 과	4,160,980		
차 량 유 지 비	3,321,200		
보 험 료	2,323,010		
감 가 상 각 비	2,504,285		
퇴 직 금 여 충 당 금	7,628,176		
관 약 회 기 금 전 출	9,924,000		
기 금 조 성 추 진 비	2,674,860		
잡 비	988,080		
잡 손 실	3,300,000		
당 기 순 이 익	344,617,475		
합 계	1,073,610,344	합 계	1,073,610,344

위와 같이 공고함

1995.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 在 淳

음대동창회총회겸 신년모임서 서울대 「음악가족클럽」발족키로



지난달 1일 열린 음대동창회 정총에서 李誠載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音樂大學同窓會(회장 李誠載)는 지난달 1일 플라자호텔 덕수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겸 신년모임을 개최했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음대동창회가 주축이 돼 서울 음대출신 연주자들의 음악활동을 후원하는 「서울대 음악가족클럽」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徐友錫학장, 白樂皓 음악협회이사장, 曹祥鉉 前음악협회이사장, 全鳳楚 코리아심포니이사장, 李慶淑·朴世源·金 吳·林憲政 모교교수, 白義鉉 이화여대 음대학장, 李相萬 서울예술단이사장이 참석했으며, 黃秉翼 이화여대교수, 李東南 서울교대교수, 피아니스트 朴孝洵동문등도 참석해 선후배의 정을 나눴다.

만찬 후, 경품추첨등 여흥시간이 있었으며, 특히 SBS악단장으로 있는 金正澤(74년 음

대卒)동문을 비롯한 유 열·이광조·이선희등 초청가수들의

특별공연은 동문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의대동창회 임원개선 李吉女신임회장 선출



醫科大學同窓會(회장 姜信浩)는 지난달 17일 하얏트호텔에서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했다.

94년도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주요안건인 임원개선이 있었다. 신임회장에는 同會 부회장

으로 오랫동안 애써온 李吉女(인천중앙길병원이사장)동문이 선임됐으며, 姜信浩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새로 선임된 임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회장: 李奎恒(안양신경정신병원장) 朴姬實(산부인과원장) 金鳳泰(남서울병원장) 李珍鎭(모교교수) 池三峰(대해의원장) 許 億(고려신경외과의원장) 洪泰義(국방부 의무사령관) 韓成業(同會재미동창회장) 동문

△감사: 韓正哲(덕산병원장) 河權益(삼성의료원) 金基煥(모교교수) 동문

미대동창회 신임회장에 李信子동문



美術大學同窓會(회장 金瑞鳳)는 지난달 24일 모교 미술대학 52동 307호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94년도 결

산, 감사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구두추천에 의한 비밀투표로 신임회장에 李信子(덕성여대 미술대학장)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감사에는 朱敏淑동문이 선임됐으며, 李炳學 감사는 유임되고 남은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신임 李회장은 『여성으로서 는 최초로 미대동창회장에 선출돼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한 후, 『동창회를 매서운 살림으로 이끌고 동문끼리 자주 만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대동창회 부총장·공대학장 취임축하

工科大學同窓會(회장 李達雨)는 지난달 21일 모교 호암생활관에서 모교 부총장에 취임한 鮮于仲皓 前공대학장과 韓松晔 신임공대학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朴熙稷 최고산업전략과정 동창회장과 각 학과동창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李회장은 인사말에서 『鮮于仲皓 前공대학장과 韓松晔 신임학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노고

와 협조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공대와 동창회를 위해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鮮于仲皓부총장은 답사를 통해 『工大人의 한 사람으로서 본부에서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韓松晔 학장은 『앞으로 공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재임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학원동창회 4월7일 정기총회 예정

大學院同窓會(회장 李光魯)는 지난달 16일 정오에 신라호텔에서 신임 대학원장 환영연을 겸한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金彩潤 전임대학원장, 金完鎭 신임대학원장을 비롯해, 同會 李光魯회장, 嚴圭白(양정고교장), 玄在善(모교 명예교수), 金宗西(모교 명예교수) 부회장등과 沈炳求감

사가 참석했다. 논의 결과 金彩潤 前대학원장은 고문으로, 金完鎭 대학원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한편 同會는 오는 4월7일(금)오후5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

(志)

1994년도

대 차 대 조 표

1994. 12. 31 現在

결 산 공 고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1,820,372,996)	1. 유동부채	(730,484,210)
(1)당좌자산	(1,803,495,686)	1. 미지급금	3,804,040
1. 현금	356,833	2. 예수금	7,327,170
2. 예치금	1,606,970,948	3. 관리비예수보충금	1,793,000
3. 미수금	37,578,730	4. 임대보증금	717,560,000
4. 미수익	158,589,175	5. 미지급법인세	0
(2)기타유동자산	(16,877,310)	II. 고정부채	(338,331,022)
1. 제세전납금	16,877,310	1. 퇴직 급여 충당금	5,814,357
II. 투자와 기타 자산	(2,584,672)	2. 지급준비금	332,516,665
(1)기타자산	(2,584,672)	부채총계	1,068,815,232
1. 전취가입권	2,584,672	자본	
III. 고정자산	(1,583,143,280)	1. 자본금	(57,519,470)
(1)유형고정자산	(1,583,143,280)	1. 기본금	57,519,470
1. 토지	655,715,410	II. 자본잉여금	(101,761,978)
2. 건물	1,033,971,711	1. 기본잉여금	101,761,978
감가상각 충당금	245,594,009	III. 이익잉여금	(2,178,004,268)
3. 구축물	347,831,313	1. 당기순이익잉여금	(2,178,004,268)
감가 상각 충당금	230,640,308	가 수확한 이익잉여금	2,215,612,071
4. 기계장치	74,222,072	나. 당기순이익	△37,607,803
감가 상각 충당금	60,304,841	자본총계	2,178,004,268
5. 공구 기구와 비품	31,464,400	부채와 자본 총계	3,406,100,948
감가 상각 충당금	23,522,468		
자산총계	3,406,100,948		

손 의 계 산 서

1994. 1. 1부터
1994. 12. 31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매출액		19. 운반비	0
1. 임대수입	162,950,300	20. 광고선전비	198,000
2. 유지수입	106,255,880	21. 지급수수료	2,132,760
II. 관리비		22. 잡비	2,763,708
1. 급료	74,255,810	III. 영업이익	△161,629,614
2. 상여금	18,301,500	IV. 영업외수익	
3. 제수당	6,997,360	1. 잔존금수입	1,000,000
4. 퇴직금	17,547,240	2. 동창회전입	0
5.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7,579,157	3. 지급준비금환입액	122,102,500
6. 복리후생비	25,219,110	4. 수입이자	203,313,035
7. 여비교통비	449,400	5. 유가증권처분이익	222,466
8. 도서통신비	5,319,820	6. 잡수입	696,859
9. 수도광열비	28,001,906	327,334,860	
10. 사무비	4,872,000	V. 영업외비용	
11. 소모품비	5,157,037	1. 지급준비금전입액	203,313,035
12. 세급과 공과	25,385,898	2. 잡손	14
13. 보험료	2,212,100	VI. 경상이익	△37,607,803
14. 수선비	21,489,950	VII. 특별이익	0
15. 감가상각비	55,458,428	VIII. 특별손실	0
16. 목적사업비	122,102,500	IX.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7,607,803
17. 청소비	3,634,290	X. 법인세동	0
18. 접대비	1,757,820	XI. 당기순이익	△37,607,803

위와 같이 공고함

1995. 3.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金 在 淳

미네소타지부 정기총회 모교 발전 위한 노력 다짐



미네소타지부는 지난 2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뒷줄 좌에서 8번째 權承林회장)

미네소타支部同窓會(회장 權承林)는 지난 2월 18일 St. Paul에 소재한 「신라회관」에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정기총회 겸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權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본회 金在淳회장의 축사가 대독됐으며 任漢慶총무의 94년도 재정 및 동창회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同會는 95년도 동창회 활동계획으로 여름 야유회를 개최기로 했으며, 모교 개교 50주년에 즈음해 과거 미네소타 대학의 협조에 대한 포상을 논의했다. 또한 금년 가을로 예정돼 있는 미네소타대학 총장의 한국 방문시 모교를 방문할 경우에 대비하는 한편 모교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남가주지부동창회 全熙澤회장 선출

남가주支部同窓會(회장 李丙俊)는 지난 2월 11일 LA 욕스포드 펠레스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모임을 가졌다.

부부동반으로 1백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에 이어진 임원개선에서 全熙澤(64년 醫大卒)동문이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방미중인 李錫玄(78년 法大卒·국회의원)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역대 동창회장과 단과대학동창회장의 소개가 있었다.

부천지부 소년가장 지원

富川支部同窓會(회장 姜豪錫)는 지난 3월 24일 부천소재 위커힐 「명월관」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부임한 동문들의 환영연과 더불어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李弘來전임회장에 게 공로패, 同會발전에 크게 공헌한 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인천지법 李東治부천지원장과 인천지검 趙俊雄부천지청장에게 취임축하패를 수여했으며 본회에 모교 발전기금으로 50만원을 출연했다.

캐나다 밴쿠버지부 신임회장 金鍾鍊동문

캐나다밴쿠버支部同窓會(회장 李顯柱)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 임원개선을 가졌다.

신임회장에 金鍾鍊(55년 工大卒)동문, 총무에 柳東星(62년 工大卒)동문이 선출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지부 회장에 李京姬동문

캐나다온타리오支部同窓會(회장 李在洛)는 지난 1월 28일 총회를 열고 그동안 문리대 동창회장을 맡아오던 李京姬(61년 文理大卒)동문을 신임회장에 선출했다.

시카고지부동창회 신임 임원진 확정

시카고支部同窓會(회장 朴泳圭)는 최근 새로운 임원진을 확정했다.

신임 수석부회장에 이한식, 부회장에 임이섭, 정 호, 총무에 김정주, 재무에 김호범동문을 선임했다.

曹秀美 공연으로 기금 4억여원 모여

모교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曹秀美·서울대오케스트라 공연이 참석동문을 포함한 3천여 관중의 환호속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15일 예술의 전당에서 宋芝憲(73년 農大卒·방송인)동문의 사회로 열린 이 행사에는 본회 金在淳회장, 모교 李壽成총장을 비롯한 李洪九국무총리, 鄭元植 前국무총리등 주요인사가 부부동반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과 방송인 김한길씨등 각계 유명인사도 다수 참석했다.

롯데시네마의 「빌헬름 텔 서곡」으로 시작된 1부에서 曹동문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렛토」중 「그리운 그 이름이여」등을 불러 특유의 아름다운 고음과 완벽한 기교를 선보였으며, 2부에서는 조동진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곳」등 우리 가곡을 위주로 불러 우리 음악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나타냈다.



공연후, 金在淳회장이 曹秀美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曹동문은 선후배가 함께 하는 특별한 자리라는 생각 때문인지 열광하는 관중들의 앙코르에 끝까지 응했으며, 「썸머타임」등 대중적인 노래는 물론 『외국생활중 힘들고 외로울 때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하며 「봉선화」를 반주없이 애절하게 불러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 4명의 남학생과 함께 발랄한 율동을 곁들여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한 동문은 『카라얀이 왜 요정도 시샘한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성의를 다하는 프로의식에 찬사를 보내기도.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출연자와 3천여 관중이 하나가 돼 「서울대학교 교가」를 합창한 마지막 순서였다. 참석한 동문과 가족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서울大人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꼈으며, 감동으로 하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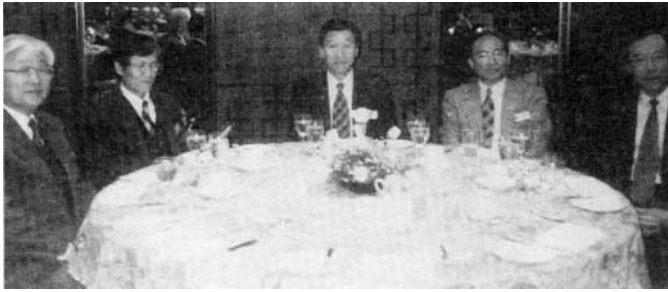
공연이 끝난 후, 1층 로비에서는 리셉션이 열려 曹동문을 비롯한 기금 출연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모교 발전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초대권이 일체 없었으며, 본회 金在淳회장이 1천만원, 馬景錫부회장이 1천만원, 鄭宗澤상임부회장이 2백만원, 李世震사무처장이 1백만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삼성미술재단에서 3억원, 중앙일보, 서울방송등 협찬사와 朴浩浩민음사사장이 1천만원을 출연하는 등 각계인사 및 동문들의 정성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모금된 기금은 4억3천여만원인 것으로 발표됐다.

(志)

지청장의 환영연을 가졌다.〈雙〉

ROTC동문회 정기총회서

행대원 盧化俊교수 특강



ROTC동문회는 지난달 15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좌로부터 李相賢동문, 盧化俊동문, 朴英珠회장, 文昌奎동문, 韓榮成동문)

ROTC동문회(회장 朴英珠·이건산업회장)는 3월15일 하오 서울 하얏트호텔 튜올림룸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중인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94년도 경과보고, 결산보고, 95년도 사업 및 예산심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모교 행정대학원 盧化俊교수의 「지방자치와 과학기술개발」이란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이 행사에는 李東和(서울신문주필·본보논설위원), 李鍾範(태림모피사장), 林漢錫(한신기업사장), 金基雄(삼정종합건

축사장), 朴炳潤(서울경제신문전무), 文昌奎(모교약대학장), 徐丙喆(외교안보연구원), 洪斗承(모교 교무부처장), 韓榮成(원자력연구소상임고문), 金有厚(변호사), 趙休翼(서울수의시험의회장), 鄭助英(한국기술단체연합회부회장), 沈春錫(이원산업회장), 李起芳(기린전자사장), 金承萬(남성부사장), 洪宗浩(태진공영대표이사), 金仁起(우보회장), 韓義鉉(유양화학부사장), 朴容德(태진공영대표이사), 金一燮(삼일회계법인대표), 孫炳斗(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 李相賢(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耳順테니스회」회원모집

耳順테니스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3월19일 모교 테니스코트에서 신입회원 모집을 위한 테니스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古希組에서 馬景錫, 崔妍嬋동문, 耳順組에서 金有燾, 尹斗石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감투상은 曹二鉉,

曹曉星동문에게 돌아갔다. 만60세 이상의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문들의 모임인 同會는 체력단련은 물론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 3월 마지막 일요일과 6월6일, 10월3일에 정기대회를 갖는다.

법대17회 바둑대회

법대17동기회(회장 崔勝民)는 3월5일 「화등기원」에서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1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인 A조에서 千仁壽, 金昌根동문이, 4급이하의 B조에서는 金東熙, 崔勝民동문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여 상품으로 吳憲鎭동문이 출연한 바둑판을 받았다.

한편 작고한 동문들의 유자녀 5명에게 각각 80만원씩의 장학금도 지급했다.

의대35회 임원개선

의대35동기회(회장 白道明)는 지난 3월10일 서울 「삼환불고기집」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35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는 차기회장에 李春虎(새서울정형외과원장)동문, 부회장겸 총무에 徐東萬(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동문, 여자동기생대표에 洪두루미(고려대 후생복지부 보건공제과장)동문을 선출하는 임원개선이 있었다.

치대29회 20주년 행사

치대29동기회(회장 姜鳳岐)는 졸업 20주년을 맞아 동기생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중이다.

그 첫번째 행사로 오는 4월9일 오후 2시에 올림픽공원 북2문 앞 뽕밭 테니스코트에서 테니스대회를 갖고, 4월29일에서 30일까지 1박2일간 덕유산 무주리조트에서 가족동반 등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대29동기회 20주년 기념 행사에 많은 동문의 참가를 기다린다.(연락처 尹斗重동문 T. 542-4191)

신문학과동창회

회장에 朴承寬동문 선임

신문학과동창회(회장 金東哲)는 지난 3월24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임된 임원으로는 회장에 朴承寬(모교 교수)동문, 부

회장에 柳哲基(한국일보 전국부차장), 朱東晃(광운대 교수)동문, 감사에 李丙燮(방송개발원 방송정책연구실)동문, 총무에 金文洙(모교 언론정보연구소)동문이다. <泳>

길옥윤동문 영원한 “이별”



애도사는 맑게 갠 하늘을 부영게 만들었다. 인생을 같이 걸어온 동반자가 없는 빈자리, 그 자리가 너무나도 시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3월21일 상오 마로니에 공원에서 故 길옥윤(49년 齒大卒·본명 崔致禎)동문의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고인과 평양 종로국민학교동기이며 모교 동문인 본회 金在淳(52년 商大卒·샘터이사장)회장을 비롯 崔秉烈(64년 法大卒·서울시장)동문, 申榮均(55년 齒大卒·예총회장)동문등 2백여명의 각계인사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고인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술이 좋아 거기에 빠져 평생을 바쳤다는 故 길옥윤동문. 영변에 약산 진달래를 한 아름 뿌려드리고 싶다는 후배들의 마음과 고인의 색소폰 소리에 힘을 얻고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었다는 그 시절 젊은이들의 고별사를 들으셨다면 가시는 길 한치의 후회도 없이 웃으며 가실 수 있었을 것이다. <泳>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이태리 명감독 「페데리코 페리니」의 작품 「길-젤소미나」를 연상합니다... 눈을 감으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당신...』

따뜻한 봄별을 맞으며 먼저간 竹馬故友를 기리는 친구의



배 째

“이 나라 중심은 관악산”

『배째는 왜 있을까』
『왜 있긴. 있으니까 있지』
술 자리 問答에 그런 問答이 돌아왔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람 몸에, 것처럼 쓸데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자 또 問答이 나왔다.

『배째가 왜 있느냐? 그야 채시라 배 째춤 추라고 있지. 한 여름 배 째T도 그렇고, 근래 미국에서 유행한다는 배 째고리도 그렇고...』

하지만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배 째이란 배 째춤, 배 째T, 배 째고리가 아니면,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일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

왜?

백과사전을 보면, 배 째이란 사람 복부에 남아 있는 태줄의 흔적이다.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 점은 설명속에 크나 큰 일깨움이 있다.

다시 말해, 배 째는 내 태생의 증명이다. 그렇기에 태생의 개구리는 배 째가 없다. 배 째는 내 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해 준다.

뿐인가.

앞의 백과사전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배 째는 『각별한 病的의의는 없고, 도리어 여러가지 目標로 이용되는 일이 많다』 여기 『도리어』는 『배 째는 쓸모가 없는 듯 하지만』을 뜻한다. 『目標로 이용된다』함은 배 째 자

리의 上下 또는 左右 어디쯤이라는 투로, 복부의 여러 위치를 특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배 째는, 탈은 별로 없는 대신, 쓸모는 많다.

몽둥그려 말한다면, 배 째는 時·空을 통틀은 位置中心이다. 그 中心이 제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모든 위치가 확정된다. 그것이 배 째의 구실이 다. 그저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본다.

이 세상 모든 것에 中心이 있다. 말하자면 배 째이다. 이 이치대로, 地球에도 배 째는 있다. 그리니치 천문대다. 그 자리가 확정되어 있기에, 우리 다른 위치를 지도위에 확정할 수가 있다.

이리하여, 술 자리 問答은 이렇게 이어졌다.

『그렇다면, 나라에도 배 째가 있을텐데, 이 나라 배 째는 어디쯤일까』

『그야 관악산이지.

도로원표가 거기 있으니까』

『도로원표가 배 째일까?』

그제서야 정답이 나왔다.

『아니지, 이 나라 배 째는 관악산이야. 거기 서울대학이 있으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배 째의 자부심이 자리에 가득한 듯 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적어도 몇 사람은 그 배 째의 배 째 구실이 과연 온전한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본보 논설위원)



金昌悅
(방송위원회 위원장)

서울대동문회고함

겸허한 마음으로

시대적 소명에 앞장서자

우리 민족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 땅, 한반도는 아직도 남북간에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북의 核 威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통일은 서서히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건설로 이제 1인당 소득 8천여불, 세계 13위의 교역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나, 이는 4천만의 피와 땀의 결정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지식과 과학기술을 포함한 역량을 그만큼 향상시킨 교육의 성과이며, 우리 사회 각계지도자들의 공헌한 바에 기초한 것이라 믿는다.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대학교를 거쳐 나온 21萬 동문들이 각계 각 분야에서 이바지한 바 공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자긍심과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때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은 것만큼 사회와 국가에 충분한 보답과 환원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 우리들이 학교에서 얻은 지식과 능력을 역으로 국가발전과 사회정의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가 하는 것이며, 셋째, 우리가 행여나 서울대동문이라는 당치 않은 우월감이나 지나친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사회에 과시하려는 愚를 범한 적은 없는가 하는 것들이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반성을 되새기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질 소명에 대해서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엄청난 변화와 時運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挑戰함으로써 5천년 민족사에 비로소 보이는 가능성을

실현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때야말로 우리 동문들이 국가와 민족앞에 더욱 위대한 공헌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黃 庚 性
(65년 行大 院 卒·국회의원)

첫째, 사회와 국가에 충분한 보답과 환원을 해왔는가
둘째, 국가발전과 사회정의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가
셋째, 스스로를 사회에 과시하려는 愚를 범한 적은 없는가



羅 雄 培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바람직”

『동창회와 동문들로부터 주는 것보다 받은 적이 많아 항상 감사한 마음과 미안함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으로 취임한 羅雄培(57년 商大卒·본회 부회장)동문은 禮訪한 본보기자를 맞으며 총동창회 및 동문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서울 상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포부와 꿈, 그리고 경영학을 택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動亂중 부산에서 入學했는데 당시는 개인이나 국가의 당면과제가 가난 추방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商學을 선택한 이유이며, 국가 경제부흥에 참여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 포부였습니다』

—요즘 학창시절과 당시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당시는 여러가지 환경의 제약으로 공부의 내용이나 깊이 면에서는 요즘 학생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적인 금지나 의지」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패기가 넘쳤다고 봅니다. 모든 학생이 다같이 어려웠으나 그만큼 기회는 많았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정책방향에 대해...

『오늘날 각 국가간의 관계는 실리와 경제교류협력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문화, 군사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는 특별한 처방보다는 인내



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래 대북정책이 문민 초기에 비해 많이 안정된 느낌입니다만...

『우리의 대북정책은 교류·협력의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학계, 재계, 관계등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보람은 무엇입니까?

『지난 86년 상공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처음으로 무역흑자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외채위기를 극복했던 일이 특히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모교 교무부처장으로 있을

때 관악캠퍼스 이전계획을立案했던 것이 또 다른 보람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은 당시 저와 함께 모교교수로 있던 鄭元植 前총리, 李洪九총리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운이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및 희망에 대해...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며, 공직을 무사히 마친 후에는 대학에서 이러한 경험등을 바탕으로 특강을 했으면 합니다』 〈嚴〉



수 상

▲崔熙俊(49년 農大卒·前기흥중학교장)=올 2월 기흥중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맞아 2월21일 정년퇴임식을 갖고, 28일 국민훈장 목련장을 서훈받았다.

▲池應業(52년 工大卒·동양공전학장)=3월16일 말레이시아 대사관저에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왕이 수여하는 국가최고의 상을 받았다.

▲金容俊(59년 法大卒·헌법재판소장)=서울고가 뽑은 「94올해의 서울인」으로 선정됐다.

▲金丁龍(59년 醫大卒·모교교수)=「제5회 호암상」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李壽成(61년 法大卒·모교총장·本會名譽會長)=서울고 총동창회가 뽑은 「94올해의 서울인」으로 선정.

▲李圭晨(87년 音大卒·성악가)=2월22일부터 3월1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20회 마리아칼라스 그랑프리국제 성악콩쿠르에서 남자 오페라부문 1등에 입상했다.

이동·선임

▲崔享燮(39년 師大卒·산업과학기술연구소이사장)=최근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출됐다.

▲曹圭光(48년 文理大卒·前헌법재판소장·本會理事)=최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趙永植(50년 法大卒·경희학원장·本會理事)=東西의학 협력을 통한 제3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매교인 필리핀의 산토토마스대학으로부터 명예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李榮德(52년 師大卒·前국무총리·本會理事)=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회에서 명지대 명예총장에 추대됐다.

▲徐元宇(53년 法大卒·모교교수)=지난 2월 20일 日本 名古屋大學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피선됐다. 또한 3월20일부터 6개월간 일본 獨協대학 객원교수로 초빙, 한국법을 강의한다.

▲李商淳(56년 工大卒·롯데건설사장·本會理事)=지난 3월 8일 사단법인 한국지하공간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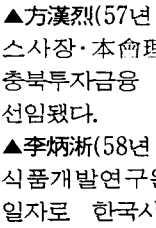
▲李柱範(56년 工大卒·쌍용그룹부회장·本會理事)=3월14일자로 쌍용자동차회장을 겸임하게 됐다.

▲宣君星(56년 師大卒·효성여대교수·本會理事)=3월2일자로 효성여대 사범대학 학장으로 부임.

▲金鍾云(57년 文理大卒·前모교총장)=3월20일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됐다.



▲尹鍾琳(57년 文理大卒·홍익대교수·本會理事)=3월7일 열린 한국공간시인협회 제6차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方漢烈(57년 商大卒·동화리스사장·本會理事)=2월24일 충북투자금융 대표이사사장에 선임됐다.

▲李炳浙(58년 法大卒·前한국식품개발연구원고문)=2월28일자로 한국사료협회 회장에 취임.

▲張幸勳(58년 法大卒·前동아일보이사·本會理事)=3월2일 민족통일문제연구소장겸 연구실장에 임명됐다.

▲李漢雄(58년 商大卒·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本會理事)=2월28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차기회장에 연임됐다.



▲金讚煜(59년 工大卒·이수화학사장·本會理事)=지난 2월23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회장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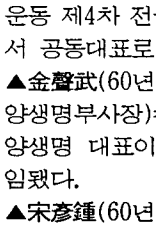
▲宋敏鎬(59년 法大卒·대전대학교 교수·本會理事)=최근 대전대학교 2부교학처장에 선임됐다.



▲許曠道(59년 文理大卒·국제조세실장·本會理事)=2월28일

서울국세청장으로 영전.

▲曹章煥(60년 農大卒·단국대학교 교수·本會理事)=지난 3월4일 대전 카톨릭농민회관에서 개최된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제4차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金聲武(60년 文理大卒·태평양생명부사장)=3월9일 태평양생명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宋彥鍾(60년 法大卒·前체신부장관·本會理事)=최근 서울 중구 순화동 삼도빌딩내 세종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黃明燦(60년 法大卒·건국대부총장·本會理事)=최근 한국환경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2년의 회장에 선출됐다.



▲權泰元(60년 商大卒·신용보증기금고문·本會理事)=3월17일 개최된 퇴직사우친선모임인 신용보증기금 동우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됐다.



▲尹翊秀(60년 商大卒·두양상사부회장·本會理事)=지난 2월10일자로 두양그룹 부회장으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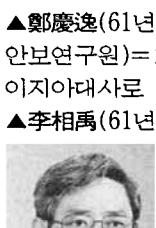


▲李俊容(60년 商大卒·동아제분사장·本會理事)=3월7일 한국제분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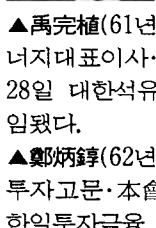


▲金泰旭(61년 農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2월17일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개최된 제36회 한국임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출됐다.

▲鄭慶逸(61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2월28일駐말레이시아대사로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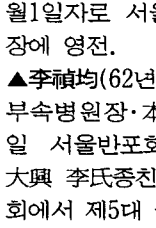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학교 교수)=최근 열린 한일문화교류기금 정기이사회에서 제2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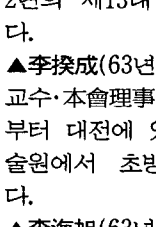
▲禹完植(61년 商大卒·한화에너지대표이사·本會理事)=2월28일 대한석유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鄭炳錫(62년 文理大卒·삼성투자고문·本會理事)=3월9일 한일투자금융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사장으로 선임됐다.



▲鄭址炯(62년 法大卒·前서울민사지방법원장·本會理事)=3월1일자로 서울지방법원 법원에 영전.

▲李禎均(62년 醫大卒·한양대부속병원장·本會理事)=3월5일 서울반포회관에서 개최된 大興 李氏宗친회 95년 정기총회에서 제5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李正仁(63년 工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최근 열린 한국자원공학회 평의원회에서 임기2년의 제13대 회장에 선임됐다.



▲李揆成(63년 商大卒·건양대학교 교수·本會理事)=95년 1학기부터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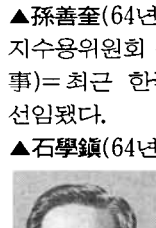
▲李海旭(63년 商大卒·前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本會理事)=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사장에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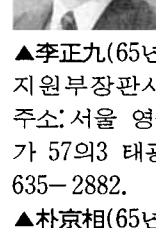
▲秋智錫(64년 工大卒·효성바스프사장·本會理事)=2월28일 한국발포스틸렌재활용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孫善奎(64년 法大卒·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本會理事)=최근 한국감정원 원장에 선임됐다.



▲石學鎮(64년 商大卒·코오롱건설사장·本會理事)=3월3일 코오롱건설 회장으로 승진했다.



▲李正九(65년 法大卒·前남부지원부장관사)=변호사개업. 주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7의3 태광빌딩 201호. T: 635-2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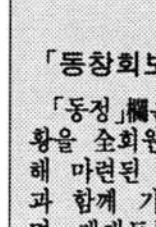
▲朴京相(65년 商大卒·중부지방국세청장·本會理事)=2월27일국세조정 조정관에 승진됐다.

▲車東世(65년 商大卒·산업연구원장·本會理事)=3월10일 한국개발원 원장에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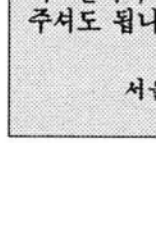
▲金鎮珠(66년 商大卒·포철부사장·本會理事)=2월27일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 제2대 협회장에 선임됐다.



▲韓勝熙(66년 商大卒·前나이키스포츠회장)=최근 사니의 대표이사겸 사장으로 선임됐다.



▲安清市(67년 文理大卒·모교



교수·本會理事)=최근 열린 동남아학회 총회에서 임기2년의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權根述(68년 文理大卒·한겨레신문논설주간)=3월13일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됐다.

▲李光鍾(70년 行大院卒·청주대학교 교수)=최근 청주대학교 행정·산업·경영·교육대학원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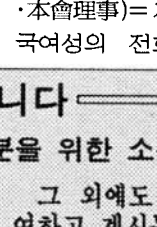
▲李柱榮(74년 法大卒·前부산지방법원부장검사·本會理事)=변호사 개업. 주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 52-3 법무빌딩 302호. T: 0551)89-9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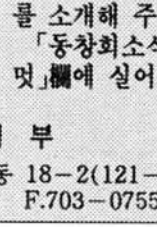
▲羅成淑(75년 美大卒·서울산업대학교 교수)=최근 한국일보사에서 열린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安炳燦(75년 新大院卒·시사저널주필·本報論說委員)=시사저널·TV저널 발행인으로 영전.



▲朴仁濟(75년 法大卒·변호사·本會理事)=지난 3월3일 한국여성의 전화가 여성인권을



알립니다

「동창회보」는 동문여러분을 위한 소식지입니다

「동정」欄은 동문들의 근황을 조화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기사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나 팩스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동호모임이나 기·과별 소식 또는 동문이 경영하고 있는 업소를 소개해 주십시오. 「동창회소식」과 「맛과 멋」欄에 실어드립니다.

편집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121-040)
T.703-5954~6 F.703-0755

위해 만든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운영위원장에 선임됐다.

▲林周煥(76년 行大院卒·前한국관광공사진흥본부장·本會理事)=최근 충남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장에 취임.

행사·출간

▲李琰(35년 商大卒·국제화재명예회장)=2월24일 모교상대재학생 40명에 대한 장학금과 서울대 도서관입지 원금을 전달했다.



▲金宗西(49년 師大卒·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장)=3월14일 서울 오희동 지역사회교육회관에서 「자녀의 바른 독서지도교실」을 열었다.



▲朴稚榮(50년 法大入·한양대행정대학원장·本會理事)=유엔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유엔국제공법대회에서 「세계사회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이란 주제로 연설했다.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회장·本會理事)=항만기술발전과 충북지역 및 충북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월24일 충북대에서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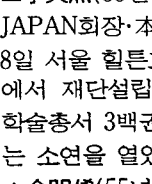
▲金在淳(52년 商大卒·샘터이사장·本會會長)=오는 4월 27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샘터 25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金錫營(55년 法大卒·태양종합사회장·本會理事)=최근 石吾 李東寧선생 55주기를 맞아 李東寧선생의 일대기 「조국광복의 대인」을 발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李英熙(55년 法大卒·대우JAPAN회장·本會副會長)=3월 8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재단설립 17주년 및 대우학술총서 3백권 출간을 기념하는 소연을 열었다.



▲金明樺(55년 音大卒·한국성악회 이사·本會理事)=지난 3월10일 東京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東京 2750 地區大會」에서 특별 초청연주를 했다.



▲林瑤圭(56년 工大卒·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3월20일

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원자력안전기준자문단(NUSSAG) 정기총회에 참석.

▲林錫珍(56년 文理大卒·명지대교수·本會理事)=3월21일 명지대학교 소강당에서 독일 에센대 철학과 회계교수를 초청,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윤리적 결단」을 주제로 춘계학술강연 및 세미나 개최.



▲李相旭(56년 醫大卒·카톨릭의대교수)=3월6일부터 10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차 亞太안과학회에서 「아시아의 각막이식과 眼銀行」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李吉女(57년 醫大卒·인천길병원이사장·醫大同窓會會長)=최근 「새생명 찾아주기 운동본부」와 협력해 확장성 심근증을 앓아오던 환자에게 무료 심장이식수술을 실시했다.



▲車相彌(58년 法大卒·한국생산본부회장)=3월 9, 10일 양일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경영컨설팅 사례기법발표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金長淑(58년 藥大卒·정무제2장관·本會理事)=3월15일, 16일 양일간 美뉴욕에서 열린 제3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 우리나라 여성정책과 9월 북경에서 열릴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준비상황에 관해 연설했다.

▲朴世熙(59년 文理大卒·모교교수·本報論說委員)=2월 6일부터 20일간 中華民國中央研究院 초청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數學研究所, 國立彰化師範大學 등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韓萬青(59년 醫大卒·서울대병원장·本會理事)=3월 2일 직원들의 어린 자녀를 맡아 돌봐줄 어린이 집을 前간호대학 건물1층에 마련, 개소식을 가졌다.



▲朴世直(60년 文理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3월14일 부산 KBS홀에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일할 부산지역의 2천여 환경봉사자들과 같이 부산노동·환경문화원의 개원식을 가졌다.



▲韓完相(60년 文理大卒·방통대총장·本會理事)=3월15일 한양대 공업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이 대학 공과대학



개발정책전문가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계화와 우리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郭滿燮(62년 文理大卒·산림청장·本會理事)=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2차 식량농업기구(FAO)산림위원회 각료회의에 참석.

▲元喆喜(62년 法大卒·농협중앙회장)=3월 13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에서 서울시내 백화점 구매 담당이사 25명을 초청, 서산농특산물 전시회를 개최했다.

▲朴雲緒(63년 文理大卒·통상산업부차관·本會理事)=3월10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오피스텔에 있는 한국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협회 현판식 행사에 참석.

▲申榮福(63년 商大卒·성공회신학교 교수)=3월17일~26일 학교재에서 출소후 첫 서예전을 개최했다.

▲申昌旻(64년 法大卒·중앙대교수)=2월28일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통일경제연구회 창립2돌 세미나 및 총회 개최.

▲李恒均(64년 法大卒·관세청장·本會理事)=3월8일~11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한·베트남 세관협력회의에 참석했다.

▲卞柱仙(64년 師大卒·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本會理事)=맞벌이 부부 자녀지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을 자원봉사여성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연맹훈련원에서 실시.

▲姜明洵(65년 文理大卒·화가)=3월23일까지 인덕문화관에서 여섯번째 개인전을 개최.

▲尹成泰(65년 法大卒·의료보험연합회장·本會理事)=3월18, 19일 양일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리조트 의료보험연구소에서 의료보장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화와 우리 자세」라는 주제로 임원 및 중견간부 워크숍을 개최.

▲李千洙(65년 法大卒·교육부차관·本會理事)=3월11일 명지대에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黃吉秀(65년 法大卒·前법제처장·本會理事)=95년도 1학기부터 호서대학교 대학원에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법의 역할」과목을 강의한다.

▲金泰淵(65년 商大卒·한국관광공사사장)=3월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95베를린국제박람회(ITB)에 참석.

▲崔昌潤(66년 文理大卒·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3월 10일 서울힐튼호텔 지리산룸에서 베트남 호치민대 원목자오총장을 위한 오찬을 마련했다.

▲金大模(66년 工大卒·한국노동연구원장·本會理事)=지난 3월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勞·社·政 및 學界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을 개최했다.

▲朱良子(66년 大學院卒·국회의원·本會理事)=3월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세계화와 한국 가족법」을 주제로 제1회 연구토론회 개최.

▲趙洪來(67년 文理大卒·농어촌진흥공사사장)=「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국관계배수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16, 17일 이틀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동북아의 물 2천년-농어촌용수개발과 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李揆澤(68년 師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3월23일 잠실 롯데크리스탈 볼룸에서 농촌 농민문제의 역정을 담은 저서 「어미 두꺼비의 사랑과 용기」의 출판기념회 개최.

▲李建榮(68년 工大卒·국토개발연구원장)=3월20일부터 사흘동안 리베라호텔과 국토개발연구원의실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黃仁惠(69년 美大卒·화가)=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베를린교통 기술박물관에서 초대전을 개최.

▲朴三圭(70년 行大院卒·공업진흥청장·本會理事)=3월 8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산업별 품질경영추진본부장대회의」에 참석했다.

▲韓範求(73년 美大卒·화가)=3월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조선화관에서 네 번째 개인전 개최.

▲李柱淑(74년 美大卒·화가)=「서정소곡」「봄의 아침」등 30여점의 작품으로 3월25일까지 유나화관에서 여덟번째 개인전을 개최했다.

▲白尙昌(74년 大學院卒·한국

사회병리연구소장)=3월4일 연구소내 세미나장에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통일환경과 우리의 대응」 「한국사회에서 정치성숙의 길」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沈之淵(75년 文理大卒·경남대교수)=3월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4대 지방자치선거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楊斗柄(77년 醫大卒·제림성형외과원장·本會理事)=3월17일 여의도 63빌딩 체리홀에서 개업의 생활중에 겪었던 일들을 모든 「자신있는 여성」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曹秀美(81년 音大入·성악가)=3월20일, 21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런던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金大模(66년 工大卒·한국노동연구원장·本會理事)=지난 3월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勞·社·政 및 學界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을 개최했다.

▲朱良子(66년 大學院卒·국회의원·本會理事)=3월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세계화와 한국 가족법」을 주제로 제1회 연구토론회 개최.

▲趙洪來(67년 文理大卒·농어촌진흥공사사장)=「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국관계배수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16, 17일 이틀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동북아의 물 2천년-농어촌용수개발과 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李揆澤(68년 師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3월23일 잠실 롯데크리스탈 볼룸에서 농촌 농민문제의 역정을 담은 저서 「어미 두꺼비의 사랑과 용기」의 출판기념회 개최.

▲李建榮(68년 工大卒·국토개발연구원장)=3월20일부터 사흘동안 리베라호텔과 국토개발연구원의실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黃仁惠(69년 美大卒·화가)=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베를린교통 기술박물관에서 초대전을 개최.

▲朴三圭(70년 行大院卒·공업진흥청장·本會理事)=3월 8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산업별 품질경영추진본부장대회의」에 참석했다.

▲韓範求(73년 美大卒·화가)=3월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조선화관에서 네 번째 개인전 개최.

▲李柱淑(74년 美大卒·화가)=「서정소곡」「봄의 아침」등 30여점의 작품으로 3월25일까지 유나화관에서 여덟번째 개인전을 개최했다.

▲白尙昌(74년 大學院卒·한국

사회병리연구소장)=3월4일 연구소내 세미나장에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통일환경과 우리의 대응」 「한국사회에서 정치성숙의 길」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沈之淵(75년 文理大卒·경남대교수)=3월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4대 지방자치선거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楊斗柄(77년 醫大卒·제림성형외과원장·本會理事)=3월17일 여의도 63빌딩 체리홀에서 개업의 생활중에 겪었던 일들을 모든 「자신있는 여성」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曹秀美(81년 音大入·성악가)=3월20일, 21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런던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金大模(66년 工大卒·한국노동연구원장·本會理事)=지난 3월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勞·社·政 및 學界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을 개최했다.

▲朱良子(66년 大學院卒·국회의원·本會理事)=3월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세계화와 한국 가족법」을 주제로 제1회 연구토론회 개최.

▲趙洪來(67년 文理大卒·농어촌진흥공사사장)=「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국관계배수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16, 17일 이틀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동북아의 물 2천년-농어촌용수개발과 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李揆澤(68년 師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3월23일 잠실 롯데크리스탈 볼룸에서 농촌 농민문제의 역정을 담은 저서 「어미 두꺼비의 사랑과 용기」의 출판기념회 개최.

▲李建榮(68년 工大卒·국토개발연구원장)=3월20일부터 사흘동안 리베라호텔과 국토개발연구원의실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黃仁惠(69년 美大卒·화가)=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베를린교통 기술박물관에서 초대전을 개최.

▲朴三圭(70년 行大院卒·공업진흥청장·本會理事)=3월 8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산업별 품질경영추진본부장대회의」에 참석했다.

▲韓範求(73년 美大卒·화가)=3월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조선화관에서 네 번째 개인전 개최.

▲李柱淑(74년 美大卒·화가)=「서정소곡」「봄의 아침」등 30여점의 작품으로 3월25일까지 유나화관에서 여덟번째 개인전을 개최했다.

▲白尙昌(74년 大學院卒·한국

결혼

*김종현군(88년 工大卒)·곽재경양=4월7일 14시.

*하창원군(90년 社會大卒)·김재의양=4월8일 12시 30분.

*김성훈군(91년 人文大卒)·우명숙양(92년 人文大卒)=4월8일 14시.

*박승구군(86년 工大卒)·리운주양=4월8일 15시30분.

*신건성군(91년 醫大卒)·임경숙양(89년 家政大卒)=4월9일 11시.

*곽보연군(89년 農大卒)·한희경양=4월9일 12시30분.

*문주현군(90년 工大卒)·박수종양=4월9일 15시30분.

*김형근군(92년 師大卒)·김정화양=4월15일 14시.

*안성대군(92년 經營大卒)·정미숙양=4월15일 15시30분.

*오세관군(86년 人文大卒)·김효선양=4월16일 11시.

*백동현군(94년 齒大卒)·신지연양(94년 齒大卒)=4월16일 12시30분.

*김상하군(89년 法大卒)·정선양=4월16일 14시.

*김희두군(86년 工大卒)·정선경양=4월16일 15시30분.

*엄태동군(88년 師大卒)·배영주양=4월22일 14시.

*김재일군(92년 工大卒)·최지애양=4월23일 11시.

*이성진군(91년 人文大卒)·정종숙양=4월23일 14시.

*박진식군(88년 農大卒)·윤경숙양=4월23일 15시30분.

*박순민군(88년 農大卒)·이주영양=4월30일 12시30분.

*박석우군(90년 自然大卒)·박순덕양=4월30일 1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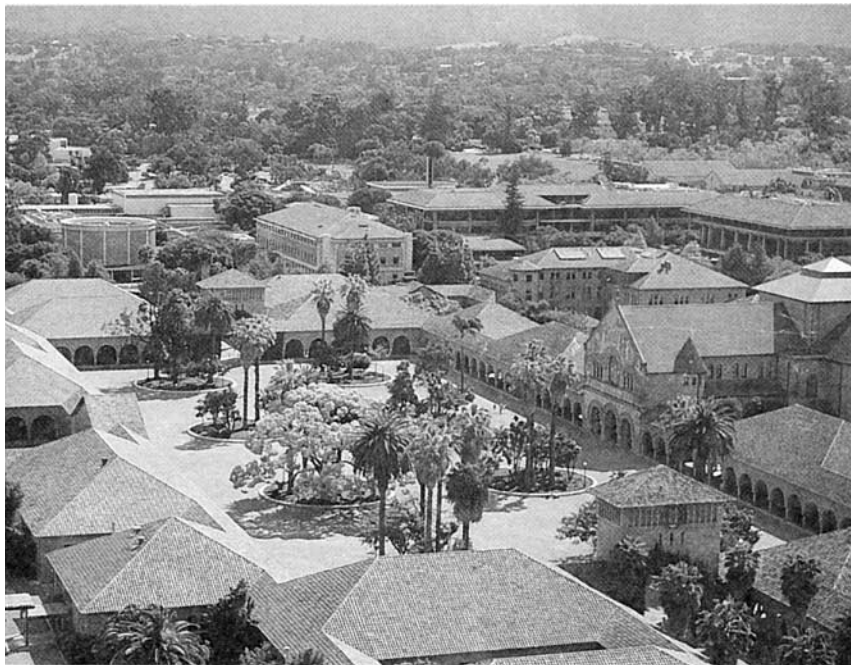
스탠포드대학

인문·자연과학 최고급 교수 포진 학부과정 「유연성·교양교육」강조

스탠포드 대학의 정식 명칭은 Leland Stanford Jr. University이다. 미국 서부의 대재산가이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연방상원의원을 역임했던 Leland Stanford부부의 사랑하던 외아들인 Leland Stanford Jr.가 16세를 넘기지 못하고 장티푸스로 죽자 그 아들의 이름으로 대학을 건립한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은 1891년 19명의 교수와 5백59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다. 처음부터 동부의 Ivy League대학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실용적인 교육과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대학원을 같이 설립하였으며 남녀공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스탠포드 대학이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로서, 당시 공과대학교 학장이었던 터만 교수의 산학 협동 노력이 큰 기여를 하였다. Varian, Hewlett-Packard등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창설한 중소기업들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현재 실리콘 밸리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했다. 이 사례는 아직도 가장 성공적인 산학협동의 예로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은 8개의 단과대학(문리대, 경영대학, 지구과학, 교육, 공학, 법학, 의학)에 70개의 학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약 1천4백여명의 교수가 6천5백여명의 학부생과 7천5백여명의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 교수중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9명 있고, 6명의 풀리처상 수상자가 있는 등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모두 최고급의 교수진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분야의 Hoover Institution on War Revolution and Peace, 입자물리학 분야의 Stanford Linear



스탠포드 대학전경. 넓고 평평한 부지에 스페인 식으로 학교 건물을 지어, 가장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의 하나라는 평을 듣고 있다.

Accelerator Center(SLAC), 반도체 분야의 Center for Integrated Systems(CIS)를 비롯한 약 30개의 독립적인 연구소들이 學際間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Hoover연구소는 미국의 보수적인 인사들의 싱크 탱크로서 미국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관료와 정치인들도 많이 연구하는 곳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은 「유연성」과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와는 달리 전공이 입학할 때부터 경직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3학년으로 진학할 때까지만 선택하면 된다. 또한 복수전공, 부전공을

택할 수도 있다. 1, 2학년 때에는 교양 교육에 치중하여 되도록 넓은 영역의 과목을 듣도록 유도한다. 작문과 문화사는 공동 필수 과목이고, 역사, 미국 문화, 수학, 자연과학, 공학, 문학, 철학 및 종교, 심리학 등으로 구분된 8가지 교양영역에서 각각 적어도 한 과목 이상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어 하나를 1년이상 수강하거나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 전공 교육에서는 물론 학문적 깊이를 요구하지만, 이 때도 지식의 편협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대학원 과정 또한 경직된 규정이나

필수과목 위주보다는 유연성을 살리며 운영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졸업한 물리학과와 경우, 학생이 원하면 응용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등 인접학과나 SLAC, CIS등 관련연구소의 교수를 지도교수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여기서 취급하는 대부분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스탠포드는 원래 주립대학과는 달리 소규모의 학생수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졸업생 수가 많지 않다. 특히 처음에는 소수민족과 외국인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한국인 졸업생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은 1백50명 이상이 학부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다. 현재 스탠포드대학 한국동문회는 동양그룹 玄在賢회장(81년 MBA)이 제11대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스탠포드 대학의 한국학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졸업생으로는 故 金在鎔 경제수석비서관(경제학박사), 보건복지부 장관인 徐相穆박사(경제학), 洪錫炫중앙일보사장(경제학박사), 崔順達, 張虎男 과학기술원교수, 陳大濟 삼성전자전무 등이 있으며,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문들도 물리학과와 李峻圭, 노어노문학과와 李仁暎, 산업공학과의 吳亨植교수등 15명이 된다. 또한 1960년대에 International Center for Advancement Management Education(ICAME)프로그램으로 다녀간 黃炳俊, 南德儼, 羅雄培, 李承潤씨등도 동문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吳世正(75년 文理大卒) 모교 자연대교수)



考試小考



車柱環 명예교수

나는 그동안 실로 무수한, 그리고 가지각색의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왔다. 각급 학교의 입학시험과 진급 내지 졸업에 위한 시험을 비롯해서 각종 학위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행해지는 시험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입시가 여의치 못해 재수나 삼수를 하거나 때로는 중년이 넘고 심하면 노년에 접어들어서 겨우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어색한대로 만학을 하게 되는 사례까지 생기기도 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갖가지 시험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없지 않고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논문을 제출했으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시고 때로는 건강을 해쳐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이러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시험은 취직 시험이나 각종 자격시험에 비하면 그래도 문제가 덜 심각한 편이다.

특히 사법 행정 외무 등등의 이른바 고등고시는 매년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더 많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합격도 못하면서 몇 차례고 되풀이 응시해 가며 아까운 청춘을 시험으로 소모해 버리는 수가 많다.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내 집안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지 않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 법학과에 입학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학시절부터 사법

고시에 응시하기 시작한 것이, 어쩌다 일차 시험에 합격하는 수가 있기는 하였지만, 번번이 낙방해서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여전히 고시 공부를 하는 신세로 남아 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고등고시 낙방생들 중에는 아주 폐인이 되어 버려 낙오자로 인생을 망쳐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러한 일들 이외에도 시험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이를테면 직접 시험지였다 답안을 쓰는 종류의 시험은 아니더라도 채용이나 승진을 위해 자료를 제출시켜 업적과 경력을 심사하는 종류의 특수한 시험도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현대는 시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시대이므로 시험이 따라다니기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결코 시험을 없앨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를 제한해서 무제한 시험에 매달려 있지 않고 깨끗이 단념하고 다른 길을 택해 살아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를테면 모모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시나 각종 고등고시에는 누구나 평생에 한 차례, 많아야 두 차례밖에 응시할 수 없다든지, 한 대학의 교수 공개채용에는 한 사람이 평생에 단 한번밖에 응모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종류의 시험에도 적절한 조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이러한 제한이 헌법 같은데 저촉되는 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응시 내지 응모의 횟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우리는 77학번 부부

우리집 家長



좌로부터 딸 지원, 필자, 夫君 李奉宰(서울산업대교수)동문

우리 부부는 77학번 동기생이다. 우리가 입학한 해 관악캠퍼스는 아주 황량했다. 지금의 교문에서 강의실까지 가는 길은 거친 들판이었다. 간혹 깨끗이 그런 화초가 심겨졌다가 사라지곤 하던 그 들판을 우리는 긴 행렬을 이루며 「새벽」 9시에 순례자들처럼 말없이 걸어 올라가던 생각이 난다. 1동옆 호수까지는 아무 건물도, 심지어 쥐똥나무 울타리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우리가 만난 것은 그 한 없이 먼 들판 길을 왔다갔다 하던 1학년 봄이었다. 그 후로 우리 줄곧 사이좋은 친구였고 몇몇 계도 결혼을 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였다. 그는 이공계열에 입학해서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이야기지만 나는 그 사람이 멋진 건축가가 될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는 웬지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애인이 있는 건축학도들은 모두 T자형의 제도용자에 털실로 뜨게질한 옷(?)을 입혀 들고 다녔었는데 내가 그것

黃熙淑 (81년 人文大卒)대진대학교수

을 비웃었던 일과 관계가 있을지도?

우리는 박사과정 수료무렵 양가의 성화로 맨송맨송 결혼을 했다. 신혼에도 우리는 서울과 경기일원에 강의하러 다니느라 새벽부터 바빴다. 언젠가 용인 강의를 마치고 잠실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무료한 중에 옆에 서있는 남자의 양복 소매를 보니 하얀 분필가루가 묻어 있는 것이었다. 이 대낮에 초중고 교사는 아니겠고, 옆사람도 나같이 피곤한 대학강사구나 생각했다. 몇 정거장을 지나서야 얼굴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다른아닌 나의 남편이 아닌가! 우리는 어쩔거나 너무나 반가웠고 초가를 따가운 햇살속에서 웃어대며 집으로 걸어왔었다.

부부가 스무살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많은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서로 은연중 견제하며 같은 시기에 박사학위논문을 썼다는 것도, 사실 우리는 학위논문을 쓰면서 제일 많이 다투었는데 아마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전히 그 사람은 내게 소중한 친구이자 제일 신뢰할 만한 동료다. 육아문제에도 최고의 해결사다. 우리 딸이 통통하고 겁이 많아 수영배우기를 무서워하고 수영장에선 울다 토하는 일이 많았을 때였다. 나는 마구 화만 내고 있었다. 그런데 수영을 전혀 할줄 모르던 그는 수영모자에 물안경까지 사서 쓰고 풀에 과감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걸어다니면서 옆의 수영코치들을 흉내내 어린 딸을 가르쳤다. 며칠 분투 끝에 그 아이는 수영 코치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나는 그 일로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엉터리 (가사이론가)가 아닌 훌륭한 (가장)으로서, 그는 나처럼 원칙만 고집하지도 않으며, 재미있고 유익한 아버지다. 동문 중에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있었을 줄이야. 한편, 이제 그가 장발에 녹색잠바의 재기어린 「청년」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사실이 섭섭하기도 하다.

모교소식



신임 李壽成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대학교육의 定向을 피력했다.

제20대 총장 李壽成박사 취임 “도덕성 겸비한 전문인 육성”

모교는 지난 18일 교내 문화관에서 金淑喜교육부장관, 金容俊헌법재판소장, 金 璿대 한변협회장, 尹天柱, 高柄翊, 權彝赫, 李賢宰, 趙完圭, 金鍾云전임총장등 교내의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李壽成 제20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李총장은 취임사에서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인 육성을 통해 나라와 민족에 헌신하는 대학을 이루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며, 끝없는 학문적 탐구와

민족의 진로에 관한 진지한 고민은 대학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민족교육·인간교육·국민문화생활의 수준과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총장 인터뷰 5면 참조)

이날 취임식에는 金淑喜교육부장관·高柄翊 전임총장의 축하사, 鮮于仲皓부총장의 열쇠전달이 있었으며, 학생대표로 金泰植(공법학 4년) 총학생회장이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했다.

보직교수 새로 임명 부총장에 鮮于仲皓교수

지난 3월7일자로 부총장에 鮮于仲皓교수(토목공학과), 대학원장에 金完鎭교수(국문학과)가 각각 임명됐다.

또한 주요 보직교수로 교무처장에 尹桂燮교수(경영학과), 교무부처장에 洪斗承교수(사회학과), 학생처장에 李正彬교수(의학과), 학생부처장에 白琮鉉교수(철학과), 연구처장에 金鎭義교수(물리학과), 기획실

장에 安京煥교수(사법학과), 기획부실장에 李仁遠교수(농생물학과), 대학신문사 주간에 吳生根교수(불문학과), 부주간에 姜明求교수(신문학과)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 전기금 상임이사에 姜昌淳교수(원자핵공학과)가 3월 13일자로 임명됐다.

3개 단과대 학장 선출

金世源교수(국제경제학과)가 사회과학대학 학장(2월13일자), 崔熙仁교수(수의학과)가 수의과대학 학장(3월1일자), 韓松曄교수(전기공학과)가 공과대학 학장(3월15일자)으로 새로 선출됐다.

신입생 5천45명 입학

지난 2일 교내 종합체육관에서 李壽成총장과 신입생 5천45명, 학부모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처장이 참석한 이날 입학식에서 李총장은 식사를 통해 『서울대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서울대 학생으로 몸담고 있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6학년 입학정원 동결

모교는 지난 19일 96학년도 입학정원을 동결, 올해와 같은 5천4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95학년도 입시에서 공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백40명 증원한 모교는 연구시설, 연구비 지원확대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정원을 늘리면 내실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원을 동결했다.

의대 인성교육 강화

의과대학(학장 李純炯)은 지난 18일 올해부터 기술적 측면에서 편중된 종래의 의대교육을 개선, 교양강의를 확대하고 성적위주 졸업생 포상제를 바꾸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편 의대는 올해 졸업생부터 우등상외에 봉사상, 공로상, 우정상, 연구상 등 4개 부문을 추가해 시상기로 했다.

(雙)

총장 취임사 (요지)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서울대학교는 한 민족의 대학이라는 차원을 넘어 세계 속의 대학으로 변신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外來의 학문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변화에 추종하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학문과 사회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인」의 육성을 통해 「나라와 민족에게 헌신하는 대학」을 이루는 것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학이 추구해야 할 몇가지 교육의 정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民族교육의 定向입니다. 어떠한 세계적 경쟁에서도 그 주체는 엄연히 단위국가나 민족입니다. 국적없는 교육은 歷史的 표류일 뿐입니다. 자랑스런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승계하고 국학의 내실화를 다지는 일 또한 세계화의 과정에서 참된 자부심을 견지하며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적응력의 원천이 됩니다. 서울大學校는 안일과 까닭없는 편하와, 헛된 우월의식에서 벗어나 가장 진지하고도 겸허한 자세로 민족의 희망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人間教育의 定向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고결한 인성과 예절을

지키며, 공동체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협력과 이타적 헌신을 다하는 덕성을 함양하는 것은 교육의 필지적인 목표입니다. 지역, 빈부, 각종 집단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 조국에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 또한 온 겨레가 서울대학교에게 부과한 책무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대신 더불어 살며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는 가치체계를 정립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 역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학문적 편견을 초월한 상호이해, 인문사회, 예체능,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균형있는 발전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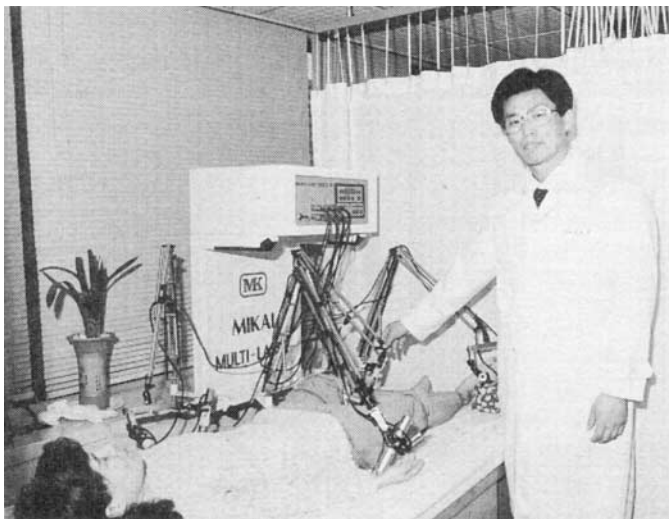
세번째로 국민文化生活의 수준과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앞장서는 일도 서울대학교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표준적 대중을 예정한 기계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정보 혁명과 유전자를 포함한 생명과학에 동참하여 국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총체적 교육체계, 소수가 아닌 다수의 정예화와 전국민의 상향평준화, 그리고 끝없는 창조력의 개발에서도 서울대학교는 그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것은 우리를 믿고 키워준 조국과 민족, 그리고 사회에 보은하는 길입니다.

사회변화와 경쟁에서 이겨나가자



선릉 통증클리닉

(02)556-6786



만성적 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두통, 신경통, 관절통, 근육통, 스포츠 상해, 류머티즘 이런 고질적인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레이저침을 한번 맞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보통 사람에게는 레이저라는 것도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그것으로 침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 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레이저라는 것은 전혀 해가 없고 그것으로 經絡을 자극하면 氣의 평형이 이뤄져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李義遠동문은 말한다.

李義遠동문은 1972년도에 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선릉역 한 일은행빌딩 5층에서 「선릉통증클리닉」이라는 통증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통증클리닉」이란 용어도 생소한데 공대를 나온 의사라니... 그러나 李義遠동문은 엄연한 의사다. 그것도 체질감별사라는 칭호

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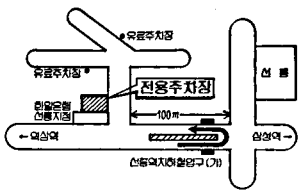
졸업후 화공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 브라질로 유학갔으나 이내 의학으로 전환, 산토스 의대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그후 15년간 브라질에서 내과와 침구과를 겸한 의사활동을 하면서 그는 「피부색깔은 달라도 결국 인간은 같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서양의 태두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론에서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관통하는 원리가 바로 4대 체질론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李동문이 운영하는 「선릉통증클리닉」에 가면 가장 먼저 체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상의학에 기초해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4가지로 체질을 판별 받게 된다. 태음인은 간경락(肝經絡), 태양인은 폐경락(肺經絡), 소음인은 신경락(腎經絡), 소양인은 비경락

(脾經絡)을 레이저로 자극, 자기체질의 경락을 자극하면 근력이 강해지고 자기체질이 아닌 다른 경락을 자극할 경우에는 반대로 힘이 빠지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판별된 체질에 따라 경락을 레이저로 20분간 자극하면 곧바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레이저로 경락을 자극한다는 것은 환자몸의 신경조절 물질을 직접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긴장이 풀리고 가수면상태에 빠지며 고통스런 증세가 경감되는 엔돌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의학과 동양의 침술 그리고 李동문이 터득한 체질진단 노우-하우가 합쳐져 만든 새로운 치료법. 이 치료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약이 필수 조건이다. 전화로 시간을 예약 한 후 방문,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된다. 1년 정도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1달 정도 이런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한번 진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3만원. 의료보험혜택은 받을 수 없고 진료시간은 평일 10시~18시, 토요일은 15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쉰다. (泳)



新刊

■포스트모던 문화읽기
—李廷鎬 著



모교
영문학과
교수로 「포
스트모
던시대
에서의
영미문
학의 이

해」를 저술한 바 있는 李廷鎬 (65년 文理大卒) 동문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조화의 조화」라고 밝혔다.

모든 것이 질서속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이 로고스 중심주의라면 포스트모던 문화는 反로고스중심주의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수평적으로 늘어서 체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출판부刊·값8천원)

■祖國光復의 大人
—金錫營 著



대한
민국
임시정
부 초대
의정원
의장과
주석을
지낸 石
磊 李東
寧

선생 55주기를 맞아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저자 金錫營(55년 法大卒·태양중합상사 대표) 동문이 지난 79년 펴낸 「先驅者 李東寧一代記」에 자료를 새로이 보강, 증보 출간했다.

金동문은 이 책에서 「李선생이 충남 목천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담았으니 피로써 써야하며 눈물로써 읽어야 할 인간의 위대한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진명문화사刊·값15,000원)

公演

■金旆바이올린독주회
—4월7일 예술의전당

바이올리니스트 金旆(64년 普大卒) 동문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견 연주가이다. 金동문은 KBS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역임하고 서울 바로크 합주단의 리더 겸 음악감독으로 합주단을 이끌면서 한국음악페스티벌이 수여하는 「이달의 음악가(1984)」, 한국음악협회의 「올해의 음악가(1987)」상을 수상했고, 89년에는 독일 바이로이트음악제의 총감독으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10년 연속 음악제참가기념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현재 서울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金동문은 수많은 독주회, 협연, 해외연주등을 통해 쉬지않고 정진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독주회에서는 슈베르트, 프로코피예프, 드뷔시, 라사테의 작품을 연주한다.

(정리=安興燮 기자)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21면 드락
22면
정년퇴임교수 프로필
24면
年會費 납부자
27면
국민카드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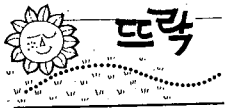
제 205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4월 1일 월 간

[21]



남아선호사상



朴素賢

(85년 醫大卒) 함춘여성의원장

산부인과 의사가 겪게 되는 여러가지 일 중에서도 가장 난감한 것은 아마 남아선호 세태일 것입니다. 어느날 한 부부가 찾아왔는데 딸만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이 무정자 증으로 정상임신은 불가능하고, 타인의 정자 공여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앞의 세 아이가 모두 그러한 인공 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었는데 또다시 인공수정을 하려고 저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사정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들 못 낳는 며느리만 다그친다는 것입니다. 손자를 볼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시어머니께 진실을 숨긴 채 며느리는 또다시 병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곧 임신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부인이 성별 검사를 원했었다면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저도 쉽게 거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끝까지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천만다행(?)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부인이 착하다든지 어리석다든지 하는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선호사상은 저학력, 빈곤층일수록 심하다고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고학력, 사회 지도층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겠고, 선대의 가업을 이어줄 든든한 아들이 필요하겠지요. 딸로는 어디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태초에 조물주께서 자연적으로 여아보다 남아의 수태율을 높게 만드셨습니다. 보고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 수태 비율은 106:100 정도로 남아의 수태율이 높습니다. 물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자연도태, 적자생존의 자연현상에 의해 출생시에는 103:100, 서로 짝을 찾게 되는 성인에 이르러서는 101:100 정도로 그 비가 맞춰 진다고 합니다. 조물주께서 애초에 여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 짝을 맞추기 위하여 남아의 수태율을 높여 놓으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지나친 발상일까요? 사산이나 영아사망 중 남아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은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는 흔히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건 복지부 통계상 우리나라의 남녀 출생 성비는

1990년에 115:100, 1993년에 118:100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엄청난 자연현상의 붕괴입니다. 이 아이들의 짝을 맞춰 주기 위해 하늘의 섭리는 어떠한 재앙으로 나타날지 두렵습니다.

외람되게 제가 남아선호사상을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

저희 부부가 딸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히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심하게 오염된 환경속에서 살고 있으며, 기형아의 출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자녀, 예쁜 손자, 손녀를 두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크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의 전화



李義香(54년 音大卒)

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協 회장

전국 4백만 심신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재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위해 1981년 유엔이 정한 「장애자의 해」에 한국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가 창립한지 여언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무엇하나 내세울만하게 큰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얼굴에는 잔주름과 흰머리가 희끗희끗 자주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자청해 가시밭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희망의 전화」를 개통, 15년간 1백만통화에 달하는 무료 고민 상담전화를 통해 힘 없고 좌절속에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부모를 잃었거나 가난한 집안형편에 있는 불우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상담전화」를 마련해 진로, 교육문제등 고민상담은 물론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상담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을 맞이해 많은 장애인들과 자식에게 소외당한 노인들을 위해 자선음악회 및 자선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로 「남북통일의 전화」를 개통해 이산의 슬픔을 가슴에 안고 40여년의 긴 세월을 보낸 남북이산가족을 위해 한껏 봉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의 물심양면의 성원이 있으시길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정년퇴임교수 프로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문연구와 후학육성에
반평생을 바쳐온 모교 교
수 열 여덟분이 지난 2
월28일 정년퇴임으로 모
교를 떠났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하고 헌신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분들의 약력
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정리=安興燮 기자〉



李 桓 교수
인문대·불문학

佛문화연구의 새 지표 창출

李교수는 1929년 전북 순창에서 출생, 55년 문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74년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75년부터 인문대 교수로 재직해오면서 지금까지 프랑스문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파스칼의 생애와 사상」, 「불문학사상의 이해」 등의 저서를 통해 국내 관련학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81년 불어불문화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90년 불어문화권연구소를 창설해 국내의 불어문화권 연구에 새 지표를 창출했다.

약제학분야 연구에 정진

金교수는 1929년 함남 함흥에서 출생, 53년 약대를 졸업하고 69년 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63년 모교 약대에 부임해 약제학분야의 학문연구에 정진했으며 「한의학서고」, 「약제학실습」, 「의약품대사전」, 「약물의정보」 등의 저서와 한국약제학회 회장, 구암학회 부회장, 특허국 심사위원 및 정부기관의 정책자문을 통해 약무행정과 의약학 연구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金 信 根 교수
약대·제약학



金 俊 鎬 교수
자연대·생물학

남산 제모습 찾기운동 펼쳐

金교수는 1929년 전북 옥구에서 출생, 55년 사범대 생물과를 졸업한 후 65년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 교양과정부 부교수로 부임해 75년 자연과학대학에 전보돼 생태학분야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에 정진하면서 1백여편의 논문과 「일반생물학」, 「현대생태학」, 「환경과학」 등 30여편의 저서를 내고 한국식물학회 회장, 한국생태학회 회장 및 한국생물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金교수는 남산 제모습 찾기운동 등 환경보호운동과 관련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훈장 받은 명지휘자

1930년 서울에서 출생한 李교수는 53년 음대 작곡과를 졸업한 후 67년 美 맨하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음대에 조교수로 부임한 李교수는 교무과장, 음대학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콘트라베이스 수석과 KBS교향악단, KBS합창단, 국립오페라단 등의 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지휘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李교수는 현대음악과 국내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바 있다.



李 南 洙 교수
음대·작곡

유기화학분야의 학문개척

李교수는 1929년 강원도 평창에서 출생, 57년 문리대 화학과를 졸업한 후 65년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에 부임해 교양과정부를 거쳐 75년 자연과학대학에 전보된 李교수는 유기화학분야의 학문개척에 힘썼다. 특히 스타란드와 케토나드에 필요한 신물질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79년 캘리포니아대에서 수학하기도 한 李교수는 오르토사이클로판 화학의 창시자이다. 저서로는 「대학실험법」, 「최신화학용어사전」 등이 있다.



李 禹 永 교수
자연대·화학

듀오피아노協 활성화시켜

1929년 서울에서 출생한 康교수는 50년 이화여대 음대를 졸업하고 59년 美 오이오신시네티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66년 모교 음대에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후학양성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듀오피아노협회가 설립되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수많은 독주 및 협연을 통해 이 분야의 활성화에 크게 힘썼다.

康교수는 재직중 음대도서관장, 음대기악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듀오피아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康 芸 京 교수
음대·기악

도시계획·토지이용분야 연구

1930년 서울에서 출생한 尹교수는 53년 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후 74년 모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59년 공대에 부임한 이래 도시계획, 토지이용분야의 연구에 진력한 尹교수는 대한 국토계획학회 회장,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지하철전설 자문위원장, 한국GIS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도시계획」, 「도시계획사-비교연구」 등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서울시도시기본계획, 서울대캠퍼스 종합계획, 서울시 마스터플랜 등이 있다.



尹 定 燮 교수
공대·토목공학

국내외 공연·후진양성 몰두

李교수는 1930년 서울에서 출생, 52년 음대를 수료한 후 59년 美 하딘음악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58년 모교 음대에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국내외에 걸쳐 수많은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회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보였으며 후진양성에 몰두하는 등 모교 음대 발전에 기여했다.

李교수는 「제자들이 훌륭하게 능력을 발휘했을때와 잊지 않고 찾아줄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3시간정도 미려하나마 강의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李 基 媛 교수
음대·기악

물리탐사학 개척에 힘써



玄炳九 교수
공대·자원공학

1930년 서울에서 출생한玄교수는 54년 공대 광산학과를 졸업한 후 61년 미콜로라도 광산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3년 모교 공대에 부임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리탐사학분야의 개척과 발전에 온 정열을 바쳤다. 특히 지하자원의 개발과 활용기술의 자립화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에 92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바 있다.玄교수는 자원개발연구소장, 한국동력자원연구소장, 대한광산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자원공학개론」, 「현대산업사회와 에너지」, 「물리탐구의 기본원리」등을 저술했다.

동물종양학의 제1인자



1929년 경기도 고양에서 출생한林교수는 53년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68년 모교 대학원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62년 농대에 부임, 72년 수의대로 전보돼 30여년을 봉직한林교수는 우리나라 동물종양학 분야의 분류 및 진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의 기초를 다졌고 대한수의학회 회장, 한국실험동물학회 초대회장등을 역임하면서 학계에 많은 공헌을 했다.

저서로는 「최신수의임상학개요」, 「가축혈액도감」, 「수의학요론(1)」등이 있다.

지적소유권법의 위상정립



黃迪仁 교수
법대·사법학

黃교수는 1929년 평남 평양에서 출생, 57년 법대를 졸업한 후 67년 독일 쾰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4년 모교 법대에 부임한 이래 민법학의 학문체계와 지적소유권법의 위상정립에 크게 기여했다. 재직중에는 법학도서관장, 교무담당학장보,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회장등을 역임했고,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창립하여 저작권 보호를 통한 학문 및 예술분야의 발전에 공헌했다. 저서로는 「경제법」, 「저작권법」등이 있다.

국내최초로 간이식 성공



金교수는 1929년 전남 무안에서 출생, 52년 의대를 졸업한 후 63년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5년 의대에 부임해 외과학을 전공한金교수는 간 및 이식외과분야의 기초연구를 했다. 특히 간이식과 이식거부현상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데 공헌했고 국내 최초로 간이식을 성공시켰으며 간암, 신장이식의 우수한 치료기술을 남겼다.

대한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金교수는 「일반외과요법」, 「간장병」, 「가정의원」등을 저술했다.

국문학 교육·연구에 진력



丘仁煥 교수
사범대·국어교육

1929년 충남 장항에서 출생한丘교수는 54년 사범대 국문과를 졸업한 후 86년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 사범대학에 부임한 이래 국문학 및 문학교육분야의 연구와 후진양성에 진력했으며 「한국근대소설연구」, 「이광수소설연구」, 「소설창작론」등 많은 연구실적이 있다.

현대소설연구회 회장, 국어교육연구소장등을 역임한丘교수는 서울시문화상, 주요섭문학상, 월탄문학상등을 수상했다.

효소학 국내에 최초 도입



1929년 경남 함양에서 출생한金교수는 55년 의대를 졸업하고 62년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생화학분야의 권위자인金교수는 65년 의대에 부임해 효소학을 국내에 도입했고 81년 美NIH분자생물학 연구소에서 유전공학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생화학의 체계정립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국의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분자생물학회 이사, 대한생화학회 회장등을 역임한金교수는 81년 과학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변형생성문법 처음 소개해



李孟成 교수
사범대·영어교육

1929년 서울에서 출생한李교수는 53년 사범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67년 美펜실베이니아대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65년 모교 사범대에 부임한李교수는 한국언어학회의 성립에 주된 역할을 했으며 언어학 및 영어학의 분야에서 이론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변형생성문법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으며 모교 사범대학장, 한국언어학회 회장등을 역임했다.

李교수는 그동안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생리·임상의학 발전에 기여



金교수는 1930년 부산에서 출생, 55년 의대를 졸업하고 64년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4년 모교 의대 전임강사로 부임해 생리학을 전공, 「실험생리학」, 「인체생리학」등을 저술한金교수는 「산염기균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생리학 및 임상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金교수는 80년 Freiburg大 생리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지낸 바 있으며 의학도서관장, 대한생리학회 회장, 아시아오세아니아생리학회 이사등을 역임했다.

가축 혈액형 많은 논문 남겨



權宗國 교수
수의대·수의학

權교수는 1930년 경북 영주에서 출생, 56년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75년 호주 시드니대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64년 농대에 부임해 76년 수의대로 전보된權교수는 가축의 내분비와 번식생리학분야 및 국내에서 불모지였던 가축의 혈액형 연구에 진력하면서 60여편의 논문을 남겼다.

재직중 교무담당학장보, 수의과대학장, 대한수의학회 회장, 한국축산학회 회장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가축생리학」등이 있다.

방사선의학의 최고권위자



1929년 황해도 재령에서 출생한金교수는 53년 의대를 졸업, 64년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58년 의대 전임강사로 부임해 방사선과학을 전공한金교수는 대한방사선의학회 회장, 대한초음파학회 회장, 아시아초음파학회 회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

金교수는 방사선의학분야의 권위자로 「초음파진단의 원리」, 「방사선투시학」, 「최신방사선과학」등의 저술을 남기고 국제학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金周完 교수
의대·의학

동문여러분 年會費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理事·一般: 95년 1월3일~2월28일

理事

◇人文大學

- ▲변원일 76 KBS연구원
- ▲서원석 78 한려개발사장
- ▲최갑수 76 서울대교수

◇社會科學大學

- ▲김완진 76 서울대교수
- ▲조규근 77 현대증권부장
- ▲최정운 79 서울대교수

◇家政大學

- ▲박명희 75 건국대교수
- ▲백희영 69 서울대교수

◇看護大學

- ▲백혜자 68 주부

◇工科學大學

- ▲강대옥 69 LG전선이사
- ▲강명순 46 수원전문대교수
- ▲강병희 61 인하대교수
- ▲강신규 68 현대녹음사장
- ▲강일구 64 한국과학기술원
- ▲고유문 65 LG화학부사장
- ▲곽삼진 66 예전건축사무소
- ▲기우봉 68 현대ENG고문
- ▲김 철 71 (주)대농전무
- ▲김규갑 61 협성실업사장
- ▲김동휘 62 한영ENG회장
- ▲김생빈 63 동국대교수
- ▲김영기 61 정우석탄화학전무
- ▲김왕진 77 신도직물공업이사
- ▲김요환 65 전기업평가부사장
- ▲김은영 61 KIST원장
- ▲김재화 66 신한양개발상무
- ▲김정우 61 우미자원기술
- ▲김종진 64 포항종합제철사장
- ▲김종해 61 한국크리버사장
- ▲김항근 66 유니텔상사회장
- ▲김형걸 67 광산상사사장
- ▲노병완 66 한국인삼진흥공
- ▲문상훈 68 서울대교수
- ▲박상기 62 한국전력고리원
- ▲박영일 70 영진기계상무
- ▲박용철 41 장원주유소회장
- ▲박창선 66 삼성건설부사장
- ▲박한희 61 경남기업부사장
- ▲부대진 63 진아건축사장
- ▲손동준 66 동일기연사장
- ▲손윤구 66 영남대교수
- ▲송태근 69 소호무역사장
- ▲송현택 66 현인목장사장
- ▲신현우 70 (주)옥시사장
- ▲안병준 75 삼성하우징시스템
- ▲안태환 79 한라자원부장
- ▲양영모 63 (주)유공전무
- ▲양재균 68 쌍용양회전무
- ▲양창국 68 한전원자력발전처
- ▲오세철 60 서울ENG사장
- ▲유영주 62
- ▲유재소 65 도화기술공부회장
- ▲유주현 69 부평관지사장
- ▲유태권 68 세일상사사장

- ▲이계수 67 동화산업상무
- ▲이관용 60 중원전기사장
- ▲이덕선 65 전EXPO조직팀
- ▲이덕표 67 삼성특수고무고문
- ▲이병휘 64 KAIST교수
- ▲이상배 61 연세대교수
- ▲이성우 65 동양폴리에스터
- ▲이수일 67 현대자동차기획실
- ▲이재명 67 건설기술연구원
- ▲이종각 48 서울대교수
- ▲이채우 67 LG전자전무
- ▲이택우 69 진양공업사장
- ▲임상탁 61 한국자원연구원
- ▲임오강 76 부산대교수
- ▲전영환 67 전오주ENG
- ▲정석현 65 전지하철공이사
- ▲정태수 64 성균관대교수
- ▲정현기 79 한국자원연구원
- ▲제해현 69 삼양중기기술이사
- ▲조병철 65 한철상사사장
- ▲조사홍 62 (주)백화사장
- ▲주수일 65 칠성섬유회장
- ▲지민식 65 대한석탄공훈원
- ▲채방은 70 부산지검차장검사
- ▲전동우 67 일렉트론중앙원
- ▲최용덕 65 건설진흥회위원
- ▲최종병 61 한원정밀화학사장
- ▲한규석 78 증권스테이션사장
- ▲한근배 67 동아대부총장
- ▲한준수 71 선한기업사장
- ▲한찬우 63 금호ENG고문
- ▲함명호 62 건풍상사사장
- ▲허인석 72 우성산업사장
- ▲현용길 61 한리정밀사장
- ▲홍성협 61 전대한중석상무
- ▲황중구 62 한일상사사장

◇農科學大學

- ▲김현구 69 언론중재위원회
- ▲송보현 68 순천대교수
- ▲정민섭 69 경북대교수
- ▲조도현 71 아주대교수
- ▲최정화 68 서울대교수
- ▲한길영 67 경남농촌진흥원

◇文理科學大學

- ▲강재륜 69 동국대교수
- ▲고석명 65 크린텍사장
- ▲고영재 74 한겨레신문편집장
- ▲구연규 66 전대동공업이사
- ▲권혁정 63 삼양기업부사장
- ▲김기현 67 전(사)조우회
- ▲김성배 63 KBS정책연구실
- ▲김영모 61 중앙대부총장
- ▲김용일 69 카톨릭대교수
- ▲김준수 65 대림산업상무
- ▲김형호 62 정신문화연구소
- ▲김화중 68 경기대교수
- ▲민정기 68 전대통령비서관
- ▲박윤경 60 풍국화학사장
- ▲박의송 64 우풍상호신용금고
- ▲박종대 67 서강대교수
- ▲박종원 74 대한항공원주지점
- ▲박지용 49 전신문고교
- ▲박창남 62 국민대교수
- ▲배태영 72 경북대교수
- ▲손영호 69 우방건설사장

- ▲송현달 60 청주동원석유감사
- ▲신용우 66 광주승원여전교수
- ▲신우재 65 대통령비서관
- ▲어복선 68 서진상임고문
- ▲오영일 65 우일정공사장
- ▲오인석 62 스웨덴한국학교
- ▲오임상 72 서울대교수
- ▲오혁주 60 용산문화사회장
- ▲유수현 63 전부산대총장
- ▲윤광래 65 한국데이터사장
- ▲윤병익 60 민족통일연구원
- ▲윤재정 69 제흥상공사장
- ▲윤하규 66 전오양수산사장
- ▲윤혁기 67 SBS사장
- ▲이 광 66 불교방송보도국장
- ▲이강준 64 고려종합상가사장
- ▲이건화 68 부산병무청장
- ▲이규성 75 이화여대교수
- ▲이근무 60 아주대교수
- ▲이남수 69 동덕여고교감
- ▲이동렬 68 전한국코카콜라
- ▲이동화 72 자동차공업협이사
- ▲이병기 71 안기부보좌관
- ▲이상렬 75 목포KBS
- ▲이상원 75 케이칼은행
- ▲이수용 67 연산건설사장
- ▲이양길 66 삼척MBC사장
- ▲이영복 66 한국원자력연구소
- ▲이영일 64 전국회의원
- ▲이용남 62 한국성서신학교
- ▲이인형 63 부산매일신문사장
- ▲이종렬 60 전장우산업사장
- ▲이종률 64 국회사무총장
- ▲이주용 63 한국전자계산회장
- ▲이주홍 66 대우건설이사
- ▲이창복 63 탐외국어학원장
- ▲이채우 64 FORTWHEEL
- ▲이철우 66 쌍방울대리점
- ▲임석진 66 명지대교수
- ▲임인주 63 한국전기공업협
- ▲장대식 69 선경그룹사무국장
- ▲정병대 75 우신선물상무
- ▲정병오 74 대우증권역전지점
- ▲정성목 72 의왕고려병원
- ▲정순원 75 현대경제사회원
- ▲정연춘 64 교육방송원장
- ▲차재호 66 서울대교수
- ▲최희완 74 부산대교수
- ▲최경락 75 외환은행대동지점
- ▲최서영 68 노원종합유선방송
- ▲최승배 64 노동부차관
- ▲하태권 74 충북대교수
- ▲현영일 64 현대상선회장
- ▲황선필 64 전MBC사장

◇美術科學大學

- ▲신수길 74 세종대교수
- ▲윤미자 64 중문관광어촌사장
- ▲이시용 65 LSY원색제관원
- ▲이종상 63 서울대교수
- ▲장화진 73 이화여대교수
- ▲조수도 74 전대유공전교수
- ▲조승환 63 동국대교수

◇法科學大學

- ▲강양원 67 전동창제지전무
- ▲강영훈 69 해군사관학교교수

- ▲고광석 66 한일은행차장
- ▲고재화 66 한국수출입은행
- ▲구은희 63 세무사
- ▲권동렬 63 남양정밀사장
- ▲권혁채 64 한국중공업고문
- ▲김경엽 63 삼신올스테이트
- ▲김규칠 69 KBS이사
- ▲김득수 68 사립교원연금공단
- ▲김병용 64 한국지역난방공사
- ▲김보근 67 경량기포콘크리트
- ▲김봉환 60 변호사
- ▲김상구 69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석호 69 동대문우체국장
- ▲김성길 64 변호사
- ▲김성룡 64 변호사
- ▲김성준 65 영등포세무서과장
- ▲김세권 65 변호사
- ▲김수열 66 법무사
- ▲김영대 77 변호사
- ▲김영복 61 김·신·유 법률
- ▲김영태 66 담배인삼공사장
- ▲김영훈 69 송실대교수
- ▲김용구 71 농협중앙회부장
- ▲김용섭 67 우신개발금융상무
- ▲김용인 73 변리사
- ▲김용화 67 광주호남대교수
- ▲김원배 61 한일은행감사
- ▲김유후 63 변호사
- ▲김익권 47 시곡농장사장
- ▲김인중 61 진흥관세사무소
- ▲김재해 65 해운산업연구원
- ▲김정기 63 한국외국어대교수
- ▲김정득 61 (주)제일중공사장
- ▲김정룡 66 농수산부차관보
- ▲김주진 63 아남산업회장
- ▲김중웅 64 현대경제사회원
- ▲김진권 72 창원지법부장판사
- ▲김진태 75 대검찰청연구원
- ▲김찬진 63 변호사
- ▲김창엽 68 변호사
- ▲김창홍 66 대구지검경주지청
- ▲김홍재 67 변호사
- ▲나채규 75 변호사
- ▲노상국 63 유니온전자사장
- ▲노승현 64 한승건설사장
- ▲목영준 78 청주지법부장판사
- ▲문현대 62 백련공업부사장
- ▲문형식 65 변호사
- ▲민수홍 66 중앙일보편집고문
- ▲민형기 72 사법연수원교수
- ▲박병호 61 김·신·유 법률
- ▲박성집 72 덕산그룹회장
- ▲박순용 68 춘천지검검사장
- ▲박영수 66 한국기술금융회장
- ▲박용수 72 부산지법부장판사
- ▲박용일 73 변호사
- ▲박재경 61 한일은행이사
- ▲박정규 61 변호사
- ▲박종국 69 동양투자금융상무
- ▲박종렬 68 서울지검검사
- ▲변득수 67 변호사
- ▲변재일 63 변호사
- ▲서경석 71 LG전문
- ▲서삼영 69 한일銀수유동지점
- ▲석동준 68 제주지법형사과장
- ▲손계정 62 제일銀대구본부장
- ▲손광수 79 신한은행경영팀장

- ▲송광수 71 부산지검검사
- ▲송영욱 61 변호사
- ▲송용순 75 삼성그룹법무실장
- ▲송진현 75 의정부지법
- ▲신달순 69 조흥신용금고사장
- ▲신동환 62 최신물산회장
- ▲신영무 67 변호사
- ▲신창언 64 헌법재판소재판관
- ▲신희범 68 제일증권상임고문
- ▲심병련 77 창원지법부장판사
- ▲심한준 64 변호사
- ▲안길룡 73 동양증권부사장
- ▲안번일 66 국방대학원이사관
- ▲안응호 66 변호사
- ▲양승상 64 대한교원공제회
- ▲양인석 60 제일銀종합기획부
- ▲양재덕 66 한일銀중소기업부
- ▲여정구 78 변호사
- ▲오세희 62 한국흡소필사장
- ▲육종석 64 경향신문전무
- ▲유 훈 64
- ▲유근완 62 변호사
- ▲유기선 64 유기선의원장
- ▲유도희 66 미쓰비시은행고문
- ▲유재신 64 전전북교육위원회
- ▲유창종 69 광주지검순천지청
- ▲유해덕 67 수원대교수
- ▲윤경희 69 베어링부라더스
- ▲윤규신 60 제일은행부산지점
- ▲윤우정 67 변호사
- ▲이광진 66 국민銀동부본부장
- ▲이교림 77 대구지법부장판사
- ▲이금원 65 변호사
- ▲이덕모 75 변호사
- ▲이명구 60 한양대교수
- ▲이명희 67 변호사
- ▲이문재 71 서울지검서부지청
- ▲이병호 66 한국남방개발사장
- ▲이상철 63 남대문세무서계장
- ▲이상혁 68 변호사
- ▲이성오 76 변호사
- ▲이여성 73 현대정공이사
- ▲이영욱 66 변호사
- ▲이원구 72 변호사
- ▲이원택 61 전서울부시장
- ▲이일영 66 변호사
- ▲이재수 69 국제문화사연구원
- ▲이종상 68 전서은신용금고
- ▲이종일 61 법제연구원위원
- ▲이진세 63 울산중공업부사장
- ▲이진항 61 현대자동차감사
- ▲이창호 72 한일시멘트이사
- ▲이택기 65 대명파크사장
- ▲이해원 65 한국우드워드사장
- ▲임규오 69 변호사
- ▲임종선 61 변호사
- ▲장 호 71 변호사
- ▲장만호 78 대한투자신탁차장
- ▲장성환 74 장백농산사장
- ▲장세훈 69 (주)에이원사장
- ▲장창호 67 대구고검검사
- ▲장흥덕 65 신용보증기금부장
- ▲전병덕 61 변호사
- ▲전봉원 72 대도ENG회장
- ▲전수철 67 전전자동차사장
- ▲전영길 60 환경부분정보정책

▲전화수 ⑦동양화재보험부장
▲정경용 ⑨서울지검차장검사
▲정규백 ⑥세무대교수
▲정기승 ⑦변호사
▲정동욱 ⑦창원지검진주지청
▲정문화 ⑥지방행정연구원장
▲정영환 ⑦신용보증기금
▲정운직 ⑦한샘사장
▲정은구 ④삼영익스프레스
▲정저훈 ⑥매립주택환경회장
▲정한상 ⑤부산일보사장
▲정해주 ⑥통상산업부차관보
▲조경문 ⑥한국은행수원부장
▲조병륜 ⑥명지대교수
▲조석제 ⑤한국유통사장
▲조준열 ⑥前상업진흥공고
▲조찬형 ⑦변호사
▲진영일 ⑥LG증권부사장
▲차맹진 ⑥한국통신경영자문
▲최경락 ⑦한양화학이사
▲최근선 ⑤죽장중고교장
▲최기영 ⑤정선과김시스템스
▲최승민 ③변호사
▲최지호 ⑦수출입은행차장
▲최창근 ⑥대우자동차이사
▲최춘기 ⑥제일은행수원교수
▲최현근 ⑦BDK INT. 사장
▲하성대 ⑤前세방그룹감사
▲하중선 ⑦변호사
▲한상술 ④서울전산학원장
▲한영희 ⑤한국상사사장
▲한장희 ⑥대주공업사장
▲한후진 ⑥前롯데상사전무
▲허균 ⑤세우공제회사장
▲허규철 ⑦정림감정소장
▲홍경식 ⑦부산지검형사부장
▲홍일표 ⑦서울고법부장판사
▲홍진태 ⑥마포케이불회장
▲황창섭 ⑦전화번호부상무

◇ 師範大學

▲강상철 ⑦충남대교수
▲강준희 ⑦인천대교수
▲국동식 ⑦충북대교수
▲김용석 ⑤서운중교장
▲김찬삼 ⑤前경희대교수
▲박승재 ⑤서울대교수
▲송병욱 ⑥상명여대교수
▲신상철 ⑦도서출판 한샘
▲신한우 ⑤경기대교수
▲오연장 ⑥수원대교수
▲유건집 ⑥우천실업상무
▲유덕준 ④삼척산업대교수
▲이유탉 ⑥동대문구북구청장
▲최병주 ⑥산업과학대교수
▲최정신 ⑦성심여대교수
▲한종태 ⑥어린이육영회실장

◇ 商科大學

▲강신종 ⑥신세계통신부사장
▲강신찬 ⑦두레상사사장
▲강영구 ③한불종합상사사장
▲계준혁 ⑥뉴서울사장
▲곽현 ⑥무민상사사장
▲곽건영 ⑦회계사
▲구석모 ③한국경제연구원장
▲구정회 ⑥대일기계공업사장
▲구제성 ④경인기계사장
▲권영달 ⑤삼성전자고문
▲권영두 ⑤유원무역사장
▲권종선 ③前야쿠르트감사
▲권혁태 ⑦서울기든사장
▲김각중 ③한남투자신탁상무
▲김덕명 ⑥대한사료전무
▲김도승 ⑤한림통상사장
▲김두산 ③한국유리전무
▲김선영 ⑦토미제화사장
▲김영식 ⑥다림실업사장
▲김용은 ⑦신신무역사장
▲김용태 ⑦신영증권이사
▲김정철 ⑦금호렌트카부장
▲김종호 ⑤회성목재사장
▲김철환 ⑦대선제분전무
▲김현구 ⑥前유리직물사장
▲김현배 ⑦한미리스사장
▲노경진 ⑤조흥리스전무
▲노병태 ⑥종합목재부사장
▲민병운 ⑤종합기술개발감사
▲박건영 ⑥산업은행강남지점장
▲박경철 ⑦엘도라도사장
▲박광칠 ⑥썬위드사장
▲박병운 ③서울경제신문이사
▲박용기 ⑥동신공업전무
▲박재준 ⑦한국은행조사부장
▲박정호 ⑤삼양산업사장
▲박중환 ⑤단국대교수
▲박정훈 ④성우통상사장
▲박태하 ④숭실대교수
▲박희준 ⑦모터로라통신사장
▲배정운 ③한국철강신문사장
▲배진성 ④동아렌탈부회장
▲배홍규 ⑦공인회계사
▲박창기 ⑤중국미림요업공사
▲서행 ④가산상사사장
▲성기웅 ⑥진웅상사회장
▲송병락 ③서울대교수
▲송새창 ⑦前교보문고회장
▲신승철 ③한양대교수
▲심근섭 ④대우경제연구원
▲안인수 ⑥삼풍특수소재회장
▲안재천 ⑥남아기업공사사장
▲양태근 ④성광성냥공업사장
▲엄경균 ⑦삼성자연식사장
▲우용해 ⑤Y.H.WOO 회장
▲원국희 ⑦신영증권회장
▲유동길 ④숭실대교수
▲유명희 ⑥한일중부신용사장

▲윤승준 ⑥상호신용부사장
▲윤호중 ⑥한미통상부회장
▲음용기 ④현대종합목재사장
▲이계식 ⑥하성상호신용사장
▲이동원 ⑤이화요업사장
▲이두석 ⑤L.A.C. 사장
▲이병식 ⑥공인회계사
▲이상학 ⑥인홍물산부사장
▲이승은 ⑦공인회계사
▲이승구 ⑥예림INT부회장
▲이승균 ⑥경남은행상무
▲이승섭 ⑦공인회계사
▲이시조 ⑤산업은행원지점장
▲이연재 ⑥현대중공업전무
▲이영길 ⑥선경마그네딕전무
▲이용구 ③한비산업사장
▲이종용 ⑤(주)유공고문
▲이진우 ④한화그룹부회장
▲이철희 ⑥범우관세사무소장
▲이한웅 ⑤신용협동중앙회장
▲임종수 ⑥롯데물산상무
▲장영목 ⑦큐닉스컴퓨터
▲장종록 ③은성사기술고문
▲전종혁 ⑥동아임산부회장
▲정기준 ④서울대교수
▲정이권 ⑤부일지업사장
▲정종득 ⑥벽산사장
▲조의진 ⑤호진섬업사장
▲조창제 ④외화은행상무
▲주병혁 ③前한일은행본부장
▲진창갑 ⑥아주생명보험상무
▲채승 ④뉴랜드부동산사장
▲채길수 ⑦동방재무회계사장
▲최경남 ⑤(주)쌍인사장
▲최병환 ⑤前쌍용컴퓨터고문
▲최부완 ⑥한국공인회계사회
▲최성태 ⑥제주그랜드사장
▲최태규 ⑤K.B.C.I. 사장
▲한이현 ⑥대통령수석비서관
▲허남린 ⑥前삼성전자이사
▲홍두표 ⑥현대자동차전무
▲홍재형 ⑥부총리
▲황재철 ⑥신도시시스템사장

◇ 獸醫科大學

▲김선중 ⑥서울대교수
▲배상호 ⑥국립동물검역소장
▲변충렬 ⑥서부우유진료원장
▲정원공 ⑦삼우금속공업사장

◇ 藥學大學

▲강기훈 ⑦노암약국
▲권오걸 ⑥삼도약국
▲권오택 ④천지당약국
▲김광순 ③태림제약사장
▲김사용 ⑤국제약품사장
▲김석린 ⑥연일약국
▲김성근 ⑤독일약국
▲김중수 ⑤김브로스상사사장

▲마광진 ⑤대원제약상무
▲민병희 ⑤동부제약사장
▲민윤기 ⑥토산약국
▲오세창 ③세경약국
▲유용근 ⑥한국그락소전무
▲이가평 ④수정약국
▲이순호 ④보명당약국
▲이완우 ⑥동국제약상무
▲이진수 ⑥진약국
▲이태희 ⑥반여약국
▲이해빈 ⑤보건원위생부장
▲이희선 ⑤염광약국
▲정순간 ⑥삼진제약전무
▲허상 ⑥불광약국

◇ 音樂大學

▲김명희 ⑤한국성악회이사

◇ 醫科大學

▲고원순 ④고원순정형외과
▲김경태 ④한양대교수
▲김기용 ⑥울산대의무부총장
▲김두순 ③김두순정형외과
▲김병천 ⑦김병천내과의원
▲김상인 ⑤인천길병원장
▲김선태 ③김선태내과의원
▲김정현 ③김정현의원
▲김중호 ⑥강남성모병원실장
▲김진화 ③김진화내과의원
▲김창민 ⑦원자력병원과장
▲김철규 ④김철규소아과의원
▲김해룡 ④김해룡산부인과
▲김현집 ⑦서울대교수
▲김형주 ⑥서울의원
▲박근화 ⑥
▲박영원 ⑦박영원이비인후과
▲박용재 ⑦박내과의원
▲박용현 ⑥서울대교수
▲박재갑 ⑦국립의료원
▲박태동 ⑦박태동산부인과
▲배종화 ⑥경희의료원내과
▲백성룡 ⑥백성의원
▲서병준 ④서병준산부인과
▲선호영 ④선병원이사장
▲손철 ⑦손철산부인과의원
▲송영명 ⑦송영명소아과의원
▲송영철 ⑥송영철소아과의원
▲신성우 ③신소아과의원
▲신요철 ⑥지성병원장
▲안영모 ⑦병천의원
▲안재용 ⑥前순안산부인과
▲양요환 ③천연합병원
▲오도웅 ⑦서울의원
▲오상빈 ⑦오상빈정형외과
▲오준식 ⑤오준식이비인후과
▲유형준 ⑦한강성심병원내과
▲윤덕기 ⑦안산병원비뇨기과

▲윤준식 ⑤괴산의료원
▲이강훈 ⑦이강훈내과의원
▲이덕진 ⑦세종외과의원
▲이동우 ⑤이동우외과의원
▲이병주 ⑦이병주의원
▲이복희 ⑥충북대교수
▲이부영 ⑤서울대교수
▲이상복 ⑤서울대교수
▲이상완 ⑥이상완정형외과
▲이성선 ⑤서울의원
▲이은태 ⑤이은태외과의원
▲이정길 ⑦이정길소아과의원
▲정근상 ⑦서울외과의원
▲정애리 ⑦미동의원
▲정용화 ⑥정용화산부인과
▲조한익 ⑦서울대교수
▲주영식 ⑦주영식이비인후과
▲주진순 ⑦한강성심병원장
▲최동수 ⑥최내과의원
▲최호용 ④최호용산부인과
▲추광철 ⑥중앙병원과장
▲하재인 ⑤하안과의원
▲함태원 ⑥정음병원장
▲홍성태 ⑦서울대교수
▲황준식 ⑤우리의원
▲최황 ⑥서울대교수

◇ 齒科大學

▲강대건 ⑦강대건치과의원
▲강성현 ⑦강성현치과의원
▲강영만 ⑧은성치과의원
▲김성 ⑥김성치과의원
▲김경중 ⑦김치과의원
▲김광빈 ⑥건치과의원
▲김광희 ⑥보성치과의원
▲김능세 ⑦김능세치과의원
▲김무중 ⑦김무중치과의원
▲김서동 ⑥동진치과의원
▲김석연 ⑦해림치과의원
▲김석중 ⑦서울치과의원
▲김영권 ⑥김영권치과의원
▲김원우 ⑥김원우치과의원
▲김재곤 ⑥김재곤치과의원
▲김정기 ⑥대동치과의원
▲김진환 ⑥김진환치과의원
▲김한경 ⑥김한경치과의원
▲노태래 ⑥노태래치과의원
▲모경집 ⑥모경집치과의원
▲민성기 ⑥민치과의원
▲박금태 ④박금태치과의원
▲박기현 ⑥박기현치과의원
▲박상균 ⑦박치과의원
▲박의원 ⑦사당치과의원
▲박행운 ⑥박치과의원
▲배현성 ⑦배현성치과의원
▲백선언 ⑥백선언치과의원
▲서진관 ⑦한일치과의원
▲손병화 ⑦연세대교수
▲송건일 ⑦송치과의원

동문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문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95년도 정기 총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의 편의와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기총회」는 10월에 개최되는 「등산대회」와 더불어 본회의 가장 큰 행사로서 동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친목의 장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며, 지속적인 동문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총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각계 동문들과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송희춘⁶¹송치과의원
▲신현철⁶⁰신현철치과의원
▲심대섭⁵⁹심치과의원
▲양일수⁷⁹양치과의원
▲양후열⁶⁰양후열치과의원
▲여인행⁷⁰여치과의원
▲오기환⁵⁷오치과의원
▲이규철⁶⁸이규철치과의원
▲이병규⁶¹평화치과의원
▲이병윤⁵⁵이치과의원
▲이상일⁶²이치과의원
▲이상철⁶¹경희대학교수
▲이수백⁷⁴이수백치과의원
▲이영대⁷⁴삼선치과의원
▲이영희⁶⁰한양치과의원
▲이재윤⁸²덕영치과의원
▲이종철⁷⁹이종철치과의원
▲이준기⁵⁹이치과의원
▲이준섭⁵⁸이치과의원
▲이창부⁶⁵오성치과의원
▲이희우⁷¹이희우치과의원
▲임봉섭⁵³순천치과의원
▲임용준⁷²임용준치과의원
▲임창윤⁶¹서울대학교수
▲임태홍⁵⁵임태홍치과의원
▲전경근⁶⁵전경근치과의원
▲전태국⁵⁹전태국치과의원
▲전태수⁶⁰전치과의원
▲정상주⁶²정상주치과의원
▲정하익⁷⁰정하익치과의원
▲최종⁶⁵최종치과의원
▲최병식⁶²선일치과의원

◇大學院

▲안무현⁶²한국발전연구소장
▲우복주⁶⁸제원정밀사장
▲홍승해⁷⁸공인회계사

◇經營大學院

▲박철호⁷²순천대교무처장
▲배동훈⁷⁰특허법률사무소장
▲유진성⁶⁷오성코퍼레이션
▲임영록⁷³한국은행목포지점
▲장몽인⁶⁷(주)홍우회장
▲정성화⁶⁸교육평가원실장

◇保健大學院

▲김경자⁷²인천동구보건소장
▲김수철⁶⁷김수철성형외과
▲김일성⁷³오츠카제약부사장
▲김초강⁷²이화여대학교수
▲김화중⁷¹서울대학교수

▲장승철⁷⁰결핵協연구원과장

◇司法大學院

▲정경식⁶⁵헌법재판소재판관

◇新聞大學院

▲유일연⁷⁵일진문수사장

◇行政大學院

▲김윤곤⁷⁸서대문구청국장
▲배문환⁶⁵시설관리공회사장
▲어창수⁶⁴대림공영고문

— 般 —

◇人文大學

▲박연수⁷⁷ ▲송혁준⁸⁵
▲오준⁷⁸ ▲오광욱⁸⁷
▲이숙희⁸⁴ ▲이순희⁸⁶
▲이충섭⁷⁷ ▲이호석⁸⁹
▲이흥균⁷⁹ ▲하성식⁸⁸

◇社會科學大學

▲김상준⁶⁶ ▲김석완⁸⁹
▲김재길⁶⁷ ▲김재목⁸⁵
▲김홍수⁶⁹ ▲류정욱⁸⁸
▲박동영⁶⁵ ▲연선홍⁸⁸
▲오철수⁶⁷ ▲원종영⁶⁶
▲유서욱⁶⁷ ▲유승호⁸³
▲이완덕⁷⁸ ▲장덕주⁷⁹
▲정은령⁶⁹ ▲조주은⁸⁸
▲하승보⁶⁶ ▲황의균⁸⁶

◇自然科學大學

▲노찬규⁸⁸ ▲유주연⁸⁹
▲이봉완⁶⁷ ▲이재범⁸⁷
▲이태림⁶¹ ▲조석준⁷⁷

◇家政大學

▲김미영⁶⁵ ▲이지선⁸⁸
▲최은옥⁶⁰

◇經營大學

▲김윤수⁶⁵ ▲서영익⁸⁸
▲송근⁸⁸ ▲이상경⁶⁶
▲조성훈⁸³ ▲조응규⁶⁵
▲조한송⁷⁷

◇工科學大學

▲강대성⁸⁶ ▲강동우⁸⁹

▲강윤걸⁶⁷ ▲김성준⁸⁵
▲김세철⁸⁸ ▲김우식⁸⁴
▲김인중⁷⁴ ▲김재환⁵⁸
▲김준석⁶⁹ ▲김준식⁸⁹
▲김택영⁶⁶ ▲김한용⁵⁷
▲김희범⁷⁵ ▲남준현⁷⁹
▲민준석⁸⁸ ▲박문환⁸³
▲박희수⁵⁸ ▲배영훈⁷⁹
▲백남주⁵² ▲서동한⁸⁹
▲신철영⁷⁸ ▲심왕래⁷⁶
▲안병철⁸¹ ▲안영구⁶⁹
▲안영배⁵⁵ ▲양해안⁷⁴
▲오상호⁵⁵ ▲유승웅⁶⁴
▲유희갑⁷⁹ ▲이건영⁸⁸
▲이관영⁸³ ▲이길형⁷⁶
▲이남식⁷⁰ ▲이상렬⁵⁶
▲이상현⁸⁶ ▲이성웅⁶³
▲이승환⁶⁷ ▲이영택⁸⁴
▲이창희⁷⁷ ▲이정원⁶⁷
▲이희일⁵⁶ ▲임노빈⁸⁸
▲정동섭⁵⁸ ▲정석규⁵²
▲지태용⁵⁵ ▲천익정⁷³
▲최우방⁶⁷ ▲하규성⁸⁴
▲한은균⁶⁵ ▲황의선⁶⁰

◇農科學大學

▲이창복⁴³ ▲임봉호⁴⁰
▲강성모⁷⁰ ▲김남전⁸⁰
▲김성하⁸³ ▲김양식⁸⁹
▲김영현⁸⁹ ▲김옥태⁶⁵
▲김준환⁵⁵ ▲박순조⁶¹
▲박승룡⁵⁹ ▲박우철⁷⁴
▲백양빈⁶⁴ ▲백인기⁶⁸
▲서상호⁵⁰ ▲서창완⁸⁹
▲설동섭⁵⁷ ▲성영한⁸⁸
▲손영희⁷⁵ ▲안종건⁷²
▲양병이⁶⁸ ▲유광일⁷³
▲유재영⁶⁴ ▲윤덕수⁸⁵
▲이재웅⁵⁶ ▲이해중⁵²
▲이흥래⁵⁰ ▲임문순⁵⁷
▲전운수⁷⁵ ▲정기암⁶⁹
▲정정민⁶⁶ ▲조병진⁶⁵
▲채수균⁵⁸ ▲최창우⁶⁴
▲최춘숙⁸⁹ ▲한지연⁸⁶

◇文理科大學

▲고영근⁶¹ ▲권오암⁷²
▲권현주⁶⁰ ▲김금출⁵⁵
▲김기태⁶⁸ ▲김성국⁶⁹
▲김영일⁶⁴ ▲김유영⁶⁶
▲김윤식⁶⁰ ▲김재승⁵⁹
▲나미례⁶⁹ ▲박용환⁶⁶

▲송주인⁵⁸ ▲송창기⁶²
▲엄영섭⁷⁰ ▲염길정⁶⁴
▲오인규⁶⁰ ▲유시창⁷⁰
▲유은상⁶⁸ ▲유재갑⁷⁰
▲윤용진⁵⁹ ▲이상각⁷¹
▲이성해⁶⁵ ▲전익우⁶⁴
▲정계섭⁷⁵ ▲정광호⁶¹
▲정주년⁶⁵ ▲조성운⁶⁶
▲조성진⁷¹ ▲천윤길⁷¹
▲현중식⁶²

◇美術大學

▲권달술⁶⁶ ▲김복기⁸⁴
▲김수옥⁵⁹ ▲박남희⁷⁴
▲박양자⁶⁸ ▲안보선⁷³
▲안재후⁶⁶ ▲이강소⁶⁵
▲정치환⁶⁴ ▲최기숙⁶⁸
▲최동신⁶⁴ ▲최정룡⁶⁷
▲홍정희⁶⁷

◇法科學大學

▲홍순영⁴⁴ ▲박동운⁴⁴
▲강운기⁶¹ ▲강영규⁵²
▲고영한⁷⁸ ▲권영세⁸¹
▲권태형⁸² ▲김성환⁶⁸
▲김준환⁸⁴ ▲박관근⁸⁹
▲반성우⁵⁹ ▲서길식⁶⁶
▲송세빈⁸⁵ ▲안영규⁶⁶
▲안희태⁵⁵ ▲양인평⁶⁴
▲유홍섭⁸² ▲이경우⁸³
▲이상도⁷⁹ ▲이상만⁶³
▲이승철⁵⁷ ▲이신범⁸⁸
▲이재천⁵⁶ ▲임철홍⁶⁷
▲장영철⁶² ▲정건⁶⁸
▲조익래⁶⁰ ▲천기흥⁶⁶
▲최승욱⁸³ ▲최정식⁸²
▲한민수⁸¹ ▲함정훈⁶⁰

◇師範大學

▲김문남³² ▲고재순³⁹
▲안선애⁴⁵ ▲윤정자³⁹
▲장인선⁴³ ▲고영자⁶⁴
▲권오랑⁷² ▲김광웅⁶⁶
▲김구자⁶⁴ ▲김규완⁸⁸
▲김도수⁵⁶ ▲김성태⁵⁸
▲김소영⁷⁷ ▲김재윤⁶⁹
▲김주화⁶⁹ ▲김중욱⁶⁵
▲김흥기⁵⁷ ▲박정자⁵⁴
▲박종모⁶⁴ ▲박태우⁵⁷
▲서계현⁸² ▲안국진⁶⁰
▲여정우⁷³ ▲오만원⁷²
▲유영진⁵⁷ ▲이기환⁷⁵

▲이덕자⁵³ ▲이도영⁷⁰
▲이상규⁶⁰ ▲이상목⁶⁷
▲이상철⁶³ ▲이석병⁶⁷
▲이원자⁶³ ▲이운숙⁵⁶
▲정갑표⁶¹ ▲조명숙⁶¹
▲주진규⁸⁰ ▲최기수⁷⁵
▲허환영⁶⁴

◇商科學大學

▲김내홍⁴⁸ ▲강영복⁵⁵
▲김영무⁶² ▲김원태⁶⁰
▲김정수⁷⁵ ▲김철환⁶⁰
▲김화섭⁶⁶ ▲남대우⁶⁴
▲박한식⁵⁸ ▲송세표⁶¹
▲신광규⁵⁹ ▲안성봉⁷⁵
▲안일성⁶⁴ ▲유관필⁶³
▲윤영출⁸⁶ ▲인주완⁶²
▲임현일⁷³ ▲전수신⁶⁹
▲정용⁶⁵ ▲조상희⁶⁷
▲최동호⁷¹ ▲황경화⁶⁷

◇獸醫科學大學

▲김순무⁶⁹ ▲변광복⁶⁹
▲송문환⁷⁵

◇藥學大學

▲김태봉³³ ▲유형중⁴⁸
▲김유경⁶⁰ ▲김현욱⁸⁸
▲문정자⁶⁷ ▲백덕우⁶⁷
▲장현식⁸³ ▲정인명⁶³
▲조원익⁷³

◇音樂大學

▲배승택⁷⁰ ▲이문경⁷⁴
▲한정혜⁶⁷ ▲장석용⁵²

◇醫科學大學

▲박제교⁴⁵ ▲한천석⁴¹
▲한문식⁴³ ▲강치명⁴⁹
▲김응남⁴⁷ ▲양만규⁴⁹
▲강희정⁸⁸ ▲김재승⁸⁹
▲김진규⁷⁶ ▲김형진⁸⁹
▲민학진⁸⁴ ▲방두현⁵⁷
▲배병주⁵⁰ ▲배진기⁵⁷
▲송동근⁸¹ ▲신실⁶⁸
▲신순애⁸⁷ ▲왕순주⁸⁸

▲윤혜숙⁵⁹ ▲이근찬⁸⁸
▲이미나⁶² ▲이용찬⁸⁹
▲이정운⁶⁰ ▲이진성⁸⁷
▲장윤실⁸⁹ ▲정홍근⁸⁸
▲최경효⁸⁹ ▲홍석근⁸⁷
▲권영운⁴⁶

◇齒科學大學

▲유세익⁶¹ ▲조창홍⁵⁰
▲김경진⁷⁴ ▲김성우⁷⁵
▲김용성⁸¹ ▲김원기⁵⁷
▲김윤이⁷⁹ ▲김장연⁸¹
▲김창우⁸⁶ ▲김현민⁸²
▲배용주⁶⁶ ▲유인철⁸³
▲이경우⁵⁷ ▲이종갑⁶²
▲이천구⁸³ ▲이희철⁷¹
▲장기택⁸⁶ ▲장도훈⁷⁶
▲정광준⁶¹ ▲정대현⁷⁶
▲정용호⁷¹ ▲주미희⁸⁹
▲최규원⁸³ ▲최대호⁷⁷
▲한형주⁶¹ ▲허만욱⁶²

◇大學院

▲김덕환⁷⁷ ▲김작영⁷⁸
▲김재경⁸³ ▲박용봉⁷⁶
▲지재근⁶⁴ ▲최천석⁷⁷
▲한대성⁸⁸

◇經營大學院

▲김영무⁶⁸ ▲엄학선⁷¹

◇保健大學院

▲노민희⁷⁸ ▲정혜은⁶⁶

◇新聞大學院

▲김유원⁷⁴

◇行政大學院

▲김두성⁸² ▲노재홍⁶⁶
▲신영국⁶¹

◇環境大學院

▲여정태⁷⁴

◇스웨덴지부

= 7만원

여러분이 내주신 年會費는 동창회의 활성화와 모교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인

◇한국리스금융협회 朴相銀(61년 商大卒)=1좌
 ◇권오양 치과의원 權五洋(80년 齒大卒)=1좌
 ◇승용전자(주) 全相祚(63년 工大卒)=1좌
 ◇한국호아렌즈(주) 朴英祚(65년 商大卒)=1좌
 ◇장철성 치과의원 張哲星(66년 齒大卒)=1좌
 ◇(주)부산경제신문 李仁珩(63년 文理大卒)=4좌
 ◇한동대학교 金泳吉(64년 工大卒)=1좌

개인

◇人文大學

▲김영우88 ▲김태훈88
 ▲김해룡88 ▲김형락88
 ▲안치영89 ▲이창화88
 ▲정희선89

◇社會科學大學

▲김영기89 ▲노한균88
 ▲박승관79 ▲안병용88
 ▲이상두86 ▲이종택87
 ▲전홍찬83 ▲정병석76
 ▲최낙균80 ▲최낙민87
 ▲한창완89 ▲홍희준89

◇自然科學大學

▲구자현89 ▲김선우89
 ▲김성태88 ▲박무신88
 ▲박영희87 ▲백부기82
 ▲오영훈88 ▲이상구85
 ▲이은성88 ▲이재철76
 ▲장병태89 ▲장재덕87
 ▲채종학88 ▲최윤경86
 ▲하재청76 ▲홍의극88

◇家政大學

▲박수경88 ▲서유미86
 ▲성미애89 ▲신승모85
 ▲이미자85 ▲이인자59

◇看護大學

▲이용아55

◇經營大學

▲구경철85 ▲김동섭88
 ▲김명관86 ▲김병문88
 ▲김영수86 ▲민형식80
 ▲박재홍89 ▲신동일82
 ▲신용출88 ▲조영석86
 ▲조재호78 ▲차철호84
 ▲황선건88 ▲황정훈88

◇工科大學

▲강경태88 ▲강귀복78
 ▲강환구81 ▲강희신89
 ▲곽성훈84 ▲구만열84
 ▲구원석88 ▲권원태82
 ▲김국일88 ▲김성환76
 ▲김수광81 ▲김 신78
 ▲김연수88 ▲김영근89
 ▲김영수89 ▲김윤환86
 ▲김재경85 ▲김재근71
 ▲김종호84 ▲김종환84
 ▲김주환81 ▲김진근75
 ▲박건규86 ▲박성현88
 ▲박순자84 ▲박재룡72
 ▲박정우81 ▲변영진70
 ▲서재영76 ▲석호태89
 ▲심일섭89 ▲심재건77
 ▲양구승85 ▲양점식86
 ▲오우섭89 ▲오재혁89
 ▲이 건49 ▲이관영83
 ▲이규찬86 ▲이규호71
 ▲이동수88 ▲이동훈87
 ▲이만철80 ▲이상순86
 ▲이성배82 ▲이성의88
 ▲이시우89 ▲이영집86
 ▲이용경84 ▲이인혁85
 ▲이재창87 ▲이정수75
 ▲이종면88 ▲이지광89

▲이 철79

▲이형원83

▲임오강76

▲전영환87

▲주지선88

▲최봉준89

▲한공창76

▲한준수71

▲홍순기89

◇農科大學

▲강혜봉79 ▲고학균84
 ▲금태섭82 ▲김 근82
 ▲김낙배81 ▲김병우85
 ▲김성수87 ▲김성태81
 ▲김영옥87 ▲김우택86
 ▲김원주89 ▲김장섭88
 ▲김재운75 ▲김중경88
 ▲김태선82 ▲류승권88
 ▲박용옥84 ▲박원규78
 ▲박용봉88 ▲박종희80
 ▲백남근75 ▲서상호80
 ▲유유상72 ▲윤희진87
 ▲이명희71 ▲이병돈86
 ▲이병환81 ▲이신호78
 ▲이재현80 ▲이형규80
 ▲이화정88 ▲임영준71
 ▲전운수75 ▲정영철71
 ▲최만연85 ▲최성자75
 ▲최인석78 ▲최해원74
 ▲탁정욱86 ▲하철경81
 ▲하종관85 ▲황 번79

◇文理科大學

▲김 건82 ▲김덕중75
 ▲김양일85 ▲김일송88
 ▲김정태89 ▲김지현84
 ▲김찬수84 ▲류태형85
 ▲박두일86 ▲박재만88
 ▲서범자83 ▲신대철74
 ▲안현화86 ▲염정임87
 ▲우윤식85 ▲유양수82
 ▲유재천81 ▲이광찬82
 ▲이길준86 ▲이정명86
 ▲이정석84 ▲임혁백75

▲전영철85

▲정기환85

▲정태철85

▲허성희75

◇美術大學

▲고수길84 ▲김경수83
 ▲김명호89 ▲김성천86
 ▲윤경선89 ▲윤미자84
 ▲이혜진89 ▲이환범77
 ▲조명형85 ▲조영철85
 ▲홍순무88

◇法科大學

▲금진호88 ▲김경만84
 ▲김광훈83 ▲김수열85
 ▲김인승84 ▲박경재86
 ▲박종국87 ▲박종환78
 ▲박천서86 ▲박형석86
 ▲박태웅84 ▲성영수88
 ▲송광수71 ▲신용우84
 ▲신원구73 ▲신현직77
 ▲신호철85 ▲안동일83
 ▲안번일85 ▲양영철86
 ▲유연식89 ▲윤관식76
 ▲윤성태85 ▲이경우83
 ▲이규장74 ▲이상범87
 ▲이우상70 ▲이육재87
 ▲이현희77 ▲장덕조88
 ▲장성환74 ▲장준호77
 ▲정광진83 ▲정동섭80
 ▲정민성88 ▲정태웅82
 ▲정휘위86 ▲조근석81
 ▲지성기77 ▲최성룡84
 ▲최칠규72 ▲하철용72
 ▲허 봉83 ▲황운영89
 ▲황인철84

◇師範大學

▲고희령89 ▲권오현75
 ▲김성태88 ▲김영민78
 ▲김영자83 ▲김윤철72
 ▲김중옥85 ▲김현정88
 ▲박범익72 ▲박승용80
 ▲박용중86 ▲박인식82
 ▲박중서81 ▲박중세89

▲박홍일84

▲서지영87

▲송수석79

▲오근영86

▲윤명희85

▲이방렬89

▲이숙경73

▲조명희71

▲호문룡80

▲홍운표88

◇商科大學

▲권대옥88 ▲김선길82
 ▲김양용87 ▲김진천71
 ▲박인철83 ▲배종섭83
 ▲서영석86 ▲심재식84
 ▲유병규88 ▲이계연84
 ▲이규재88 ▲이병주71
 ▲이성위85 ▲이성재87
 ▲이승구85 ▲이일훈80
 ▲장무환81 ▲정진택72
 ▲조태준80 ▲최문환87
 ▲추수욱87 ▲한상현85
 ▲허 흥81

◇獸醫科大學

▲김본원87 ▲박병식87
 ▲신현일81 ▲윤영태76
 ▲이정학87 ▲이종범83
 ▲정성태85 ▲조사선72
 ▲조희표85

◇藥學大學

▲강장원87 ▲김성모79
 ▲김숙경89 ▲김일성84
 ▲김재성76 ▲김철호72
 ▲김하진79 ▲문명술80
 ▲민병희89 ▲박영배87
 ▲송종영79 ▲안혜숙86
 ▲이봉희88 ▲이승본88
 ▲임항빈89 ▲정일용73
 ▲정진우81 ▲조전훈83

◇醫科大學

▲강신일84 ▲고영박70
 ▲구홍희83 ▲권영조82

▲김석화78

▲김영수80

▲박문희86

▲박종명76

▲승익상87

▲이건용75

▲이승재78

▲장윤석85

▲최세준89

◇齒科大學

▲김광빈85 ▲김성곤72
 ▲김성수74 ▲김영달89
 ▲노재구73 ▲명노철89
 ▲박옥련87 ▲선우일권84
 ▲양일수79 ▲오민환70
 ▲원문청77 ▲이범권81
 ▲이현석88 ▲전용구86
 ▲정상철88 ▲조경석83

◇大學院

▲김승호78 ▲박이택89
 ▲박한상88 ▲성용모85
 ▲양윤식89 ▲이창환79
 ▲정영자89 ▲조대연89
 ▲조병욱88

◇經營大學院

▲권영천87 ▲김정태88
 ▲김조경74 ▲안상민72

◇保健大學院

▲김영숙89 ▲박영주89
 ▲이명섭87 ▲이한구72
 ▲정진환80 ▲황석천82

◇行政大學院

▲김경엽85 ▲박훈립70
 ▲유형식89 ▲이현승81
 ▲장학상70 ▲정영철74
 ▲홍석철84 ▲황갑손81

◇環境大學院

▲김창익87 ▲양언모85
 ▲조덕호86 ▲최형식85

'95 총동창회 임원명부 발간

95년도 서울대총동창회 임원명부가 발간됐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임원명부는 작년 9월 제129차 상임이사회에서 확대개편, 선임된 이사님들의 인적사항을 올해 2월말까지 사무처에서 최대한 확인해 수록했습니다.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대폭 정비된 임원명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여러가지 미흡한 여건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본 명부는 총동창회 임원분들에게 우편 발송 중입니다. 이외에 필요하신 동문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事務處

전화 702-2233 FAX 703-0755

